

對北 강경조치 후퇴해선 안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국민은 양보와 뇌물로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주면 평화 온다”며 10년 동안 북한의 요구대로 양보했고 10~14조 원 어치를 퍼주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서해에서 천안함 공격을 비롯, 네 차례에 걸쳐 피투성이 군사도발을 격화시키고 3대를 세습하며 핵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좌익 정권은 “주면 변한다”며 더 퍼주었지만, 북한은 더 받아먹으면서 더 도발하였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1950년 4월 19일 미국 의회 고별사가 떠오른다. 그의 고별사는 우리 국민에게는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사라져 갈 뿐이다”라는 대목만이 기억된다. 하지만 그의 고별사는 공산 독재자에게의 양보는 더 큰 양보를 강요케 한다는 경구(警句)를 함께 남겼다. 그는 공산 국가에의 “양보는 또 다른 피투성이 전쟁만 자초할 뿐”이라고 적시하였다. 양보와 유화책

은 “보다 더 많은 양보를 요구케 하며 공갈협박과 같이 끝내 폭력으로 치닫게 할 따름이다”고 경고하였다.

맥아더 장군의 지적대로 지난날의 대북 양보와 퍼주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양보를 거듭 강요케 하였고 천안함 공격으로 튀게 하였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도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간다면 끝내 이 땅에서 ‘또 다른 피

투성이 전쟁’을 피할 수 없다.

북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첫 6자회담이 열리기 시작한지 7년이 지났다. 2005년 9월, 2007년 2월, 같은 해 9월, 세 차례에 걸쳐 북 핵 폐기를 위한 공동성명 또는 합의서들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문서들에 서명하는 대가로 관련 5개국들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지원을 받

특별기고



정용석

· 단국대 명예교수
· 전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았어주며 핵 개발 자금과 시간만 벌게 하였을 따름이었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6자회담에 대한 경제·외교·군사적 제재를 밀어붙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길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제는 지난 정권의 실책과 잘못 길들여진 김정일의 고약한 조폭 근성을 바로잡는데 있다.

합 도발에 단호히 맞서지 못하고 도망치는 형국이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던 그의 당찬 기세는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이 피격되자 북 수단의 일환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이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자 즉각 보류한다며 물러섰다. 또 정부는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것마저도 북한측이 확성기를 “조준 격파”하겠다고 겁주자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으면 교류·교역·투자는 전면 중단된다고 올 5월24일 밝혔다. ‘5·24 대북

조치’가 그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북한이 자신의 ‘5·24 대북조치’를 깰아뭇냈는데도 9월 ‘수해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이란 명분을 내세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5000t을 비롯 100억원어치를 북한에 지원기로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체류 인원도 600명 이하로 제한했었던 것을 800~900명 선으로 확대키로 함으로써 천안함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 주었다. 그밖에도 북한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받아들였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3代 세습하며 “더달라” 공갈협박 양보·뇌물로 결코 평화 살 수 없어

아 쳤겠다. 미국은 연간 50만에 달하는 식량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폐기 대신 뽀뽀스럽게도 두 차례에 걸쳐 핵 실험을 감행하고 나섰다.

6자회담 7년 공전(空轉)은 다자회담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폐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였다. 도리어 합의문 서명 대가로 북한에 많은 돈을

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고 협상하는 것은 앞으로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2009년 6월엔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감행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그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천안

2010대한언론상 수상자 결정

대한언론인회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는 9월 27일 상오 심사위원회를 열고 동아일보 6·25 60주년 특별기획팀(대표 이철희 정치부차장), KBS 탐사보도팀(대표 박승규 부장), CBS 보도국 사회부팀(대표 김효은 기자)을 기획취재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고, 강병태(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씨를 금년도 대한언론상 논평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 (수상자 및 공적 내용 : 별첨참조)

시상식은 10월 25일 하오 5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

- ◆기획 취재 부문
- 수상자 · 동아일보 6·25 60주년 특별기획팀
· KBS 탐사보도팀
· CBS 보도국 사회부팀
- ◆논평부문
-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실장

시상식 : 10월 25일 오후 5시 30분 프레스센터

서 열린다.

대한언론상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장 : 정기정(본회 부회장)
위원 : 김은구(본회 상임이사)
정두진(본회 이사)
맹태균(본회 사이버위원장)
이재승(본회 편집위원)
간사 : 정운종(본회 상임이사)

2면에 공적사항·심사평

김정일의 조폭근성 바로 잡아야

1면에서 이어집니다.

북한이 '5·24 대북조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교류·교역·투자는 전면 중단한다던 이 대통령의 당당했던 공언은 빈 말이 되고 말았다. 김정일에게 100억원어치의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가고 있다. 남북관계는 다시금 친북좌익 정권 10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뇌물 공여로 돌아선 데는 필시 까닭이 있다. 겉으로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테러 발작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세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른데 있다. 김정일의 정상회담 미끼에 말려든 탓이고, "주면 평화 온다"며 떠들어대는 국내 친북 좌익 세력에 영합 하기 위한다. 그 밖에도 김정일에게 뇌물 주고 조폭 달래듯 달래가며 그럭저럭 재임 기간 편안히 넘어가자는 의도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이든 대북 지원과 교류를 허가해선 안 된다. 군량미로 전용되는 쌀은 한 톨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정상회담과 국내 좌익 세력을 의식해 자신의 '5·24 대북조치'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잔여 임기 동안 뇌물 주며 편안히 넘어가려 한다면, 자유민주체제의 안위를 불안케 하며 정치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상실케 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 대

통령을 등뺀없는 기회주의자로 불신하고 그의 국내 정치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독한 맘먹고 잘못 길들여진 김정일의 고약한 버릇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래야 만이 그는 10년간 뒤틀린 남북관계를 곧추세우고 진솔한 남북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토대를 구축해준 대통령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 [4]

2010 대한언론상 영광의 얼굴들 <수상자 공적사항>

6·25 의미 되새겨 안보의식 고양

동아일보 6·25 60주년 특별 기획팀



이철희 차장

동아일보 6·25 60주년 기획팀은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6·25 60년, 참전 16개국을 가다' 시리즈를 통해 6·25 전쟁에 참전한 16개국 현지에서 참전 노병들의 6·25 전쟁 회고와 이후의 삶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따라서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전쟁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6·25 전쟁 비화 및 자료 발굴은 물론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참전 용사 후손들에 대한 장학 사업을 이끌어 내는 등 잊혀져 가는 6·25의 진실을 일깨우고 국민의 안보경각심 확산에 크게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미화원 사회적 인식 개선 시켜

CBS 보도국 사회부



최인수
보도국 사회부 기자



김효은
보도국 사회부 기자



이태희
보도국 사회부 기자



김정남
보도국 사회부 기자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 실태를 5부작으로 집중취재 보도함으로써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대책을

이끌어 낸 공로가 있었음. 실제로 일부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이나 보수 체계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천안함 폭침 실체·의미 올바른 논평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실장



강병태 실장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실장은 해군장교 출신으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객

관적 안목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와 의미를 올바르게 깊이 있게 진단하고 논평하는 사실과 칼럼을 다수 집필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군포로 문제 국민적 관심 일깨워

KBS 탐사보도팀



기획 박승규
KBS 사회2부 부장



취재 연구선
KBS 탐사제작부 팀장



촬영 유혁근
KBS 영상취재부 촬영기자

게 추적한 50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국군포로의 실태에 대한 공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조사 자료와

6·25 60주년을 맞아 잊혀졌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남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 해결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음. 특히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참담한 현실과 6·25 전쟁 중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끌려간 국군포로의 진실을 리얼하

미국과 중국의 미방송 자료를 입수해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국군포로 '소련 이송설'의 진실 규명을 위해 러시아 캅차카 반도와 시베리아 아무르강 유역까지 취재범위를 확대하고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국군포로의 실체를 입증하는 결과를 얻어낸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 심사평

금년도 대한언론상 심사는 예년과 달리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 심사위원회 첫모임은 지난 8월 24일에 있었다. 첫모임에서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은 대한언론상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었다. 금년도 대한언론상 심사기준일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 심사위는 이 기간 중에 있었던 주요 테마나 사건으로 한일 병합 100주년, 해방 65주년, 6·25전쟁 60주년, 그리고 천안함 사건 등으로 압축했다. 2차 모임은 9월 27일에 있었다. 자전, 타전으로 16명이 넘는 후보들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난상 토론 끝에 최종후보로 4명이 선정되었다.

첫째, 동아일보의 6·25특집 '참전 16개국을 가다'

둘째, KBS의 6·25특집 '국군포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셋째, 한국일보 논설실장 '강병태 칼럼'



정기정
· 심사위원장
· 본회 부회장

넷째, CBS 라디오특집 '환경미화원'

동아일보와 KBS의 6·25 60주년특집은 타 매체의 그것에 비해 기획력이나 취재내용이 돋보인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강병태 실장의 천안함 관련 칼럼은 그가 해군 예비역장교라는 경력을 배경으로 타지의 해설이나 칼럼을 압도하는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CBS의 '환경미

화원' 특집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의 취지에 어울린다는 뜻에서 수상작으로 뽑았다.

금년도 대한언론상은 매년 송년의 밤 행사에 겸하여 시행해 오던 것을 독립행사로 10월중에 시행토록 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대한언론상의 금년도 수상자 선정도 최선을 다하지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일관된 생각이었음을 밝혀둔다.

公正사회 권력 · 지도층이 지켜야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라는 정치적 어젠다를 내놓은 이래 공정사회는 공동체의 지배적 화두가 되었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다. 왜 공정사회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일까. 총리 장관후보자 낙마와 외교부의 특채과동이 겹치면서 지도층의 부정과 불공정을 가늠하는 엄한 잣대로 대두된 것이 직접적 이유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논리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이유라고는 할 수 없다.

이미 ‘신국론’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하지 않았던가. “정의가 없다면 국가도 강도집단과 다를 바 없다 (remota justitia, quid sunt regna nisi magna latrocinia?)”고. 이처럼 자명할 정도로 중요한 공정의 가치가 새삼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과거의 화두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였다면, 지금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우리도 한번 공정하게 살아보세”다.

당연히 공정은 공동체라는 배가 항해하면서 방향을 잡는데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북극성’과 같은 가치다. 하지만, 그 ‘공정’을 실천하는데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칼이나 불이 인간생활에 아무리 유익하다고 해도 그들을 사용하는데 분별력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이치와 같다.

첫째, 공정성은 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규범이지만, 권력층과 지도층이 제일먼저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다. 불공정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 부조리한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할 때 생긴다. 이것은 이미 플라톤의 ‘국가’에서 트라시마쿠스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했을 때 반어법으로 설파한 내용이다. 바로 이점이 공정이 일차적으로는 국민에게 요구할 행동규범이 아니라 권력층과 지도층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률이 되는 이유다. 권력층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공정사회는 무의미해지기 전에 권력주도세력의 ‘자기 채찍질’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공정사회는 약자와 빈자를 배려하는 사회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사회의 도덕적 매력은 자명하다. 서민들이 내쉬는 한숨소리에는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도덕적 호소력’이 배어있지 않은가. 하지만 공정사회추진에는 대전제가 있다. 잘사는 사람과 대립각을 세우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물론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을 ‘상생’이

아닌 ‘상극’의 존재로 접근한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임궽정이나 일지매는 부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박수를 받았고 ‘의적(義賊)’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적이 야기는 다수인들의 삶 자체가 절대빈곤으로 점철되었던 ‘헝그리 시절’의 신화일 뿐, 공정사회의 지향점이 될 수는 없다.

공정사회가 성공하려면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을 20:80이나 2:98, 1:99의 ‘적대적 범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꽃과 나비처럼 ‘공생관계’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부자아

특별기고



박 호 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더 기분 좋게 달리기 위해서 말이다. 주행선과 추월선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차가 일차선으로만 달려야 한다면, 운전자들은 평등하다는 느낌을 받기보다 짜증을 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능숙하고 실력있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다. 빨리 달리고 싶은 욕구와 빼어난 운전솜씨를 발휘할 방법이 전무하여 앞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추월선을 마련하면 능력있는 운전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천천히 달리는 차와 더 빨리 달리는 차가 충돌없

개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간에 구현되어야 할 ‘관계 지향적인 개념’임에 주목한다면, 권리만능주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의 몫’이 결여된 불충분한 비전이다. 바로 이것이 권리가 중요하지만 공정사회의 핵심적 화두가 될 수 없는 이유다. ‘각자의 몫’에는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자기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나누어야 할 ‘공동의 몫’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때, 개인의 권리·이익과 더불어 그 역할을 수행할 책임과 의무 역시 포함될 때 공정사회가 된다.

다섯째, 공정사회가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사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재화의 분배에만 ‘집중’하는 사회는 아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경제적 인간, 즉 물질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적 만족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이 빵만으로 살 수 없듯이 공동체도 빵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공정사회가 분배문제에만 매몰돼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외면하면 공동체는 비열함과 저급함만을 노정할 뿐이다.

공정사회가 물질적 복지에 치중하는 나머지 공동체의 영혼처럼 다루어야 할 지성과 품위, 덕목을 소홀히 한다면, 더 이상 공정사회가 아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해야 할 예의와 배려, 지혜는 물론, 국가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나 열정도 풍부해야 한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왜 자랑스러운지를 말해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정사회는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사회는 기여와 헌신보다는 각종 요구로 가득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일찍이 키케로는 공정성과 관련, “명예롭게 살고 남을 해하지 않으며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honeste vivere, non laedere alterum, suum cuique tribuere)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정성은 자신의 뼈를 깎고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자기반성적 개념’이 되어야지,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타인을 비판하기 위한 ‘도덕적 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남의 눈의 ‘티끌’을 보기보다 자신의 눈의 ‘들보’를 보겠다는 정신, 바로 이것이 공정사회의 ‘알파’요, ‘오메가’다. [필자주]

富者 · 貧者 대립각 아닌 共生관계 확립 ‘제몫’만 챙기기 보다 ‘공동의 몫’ 기여를

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아빠’가 생긴다는 ‘제로섬(zerosum)’ 논리보다는 ‘부자아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아빠’가 노력할만한 이유와 동기가 생긴다는 ‘포지티브섬(positive sum)’ 논리가 공정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로 나누면서 분열을 부추기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결구도를 이용한 ‘포퓰리즘’을 구사하기보다는 통합을 지향하는 구도로 나아가는 것이 공정사회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정사회는 경쟁을 공정하게 만드는 사회지 경쟁을 폐지하거나 다른 것 -예를 들면 추첨제- 으로 대체하는 사회는 아니다. 경쟁은 양질의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 하이예크(F. A. Hayek)는 경쟁이 없으면 개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거나 발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그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정사회는 경쟁의 철학을 폐기하기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모든 차들이 일차선 도로로만 주행해야 한다면, 특별한 운전기술을 갖고 뒹굴 필요가 없다. 보통 속도로 가는 주행선도 있고 빠른 속도도 가능한 추월선이 있어야 열심히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생긴다. 더 빨리 가고,

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상생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넷째, 공정사회는 개인의 몫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너’는 ‘너’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가늠하려고 하는 사회는 아니다. 공정사회는 권리만을 중시하는 권리만능주의 사회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몫’이 훼손당했다며 권리를 요구하는 소리만 넘쳐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공동선을 위해 기여하는 등, 의무나 책임을 이행하는 문제가 사소한 범주로 밀려난다면, 공정은 제자리를 찾을 수 없다.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의무’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초과의무(supererogation)’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바IBLE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것이 초과의무다. 그러므로 헌혈이나 고아입양은 의무는 아니지만 공정사회에 넘쳐흘러야 할 선행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권리주창자들은 ‘각자의 몫’을 설명하는데 노력해 왔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의 몫’에 대한 설명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했다. 그 결과 ‘자신의 몫’만 챙기는 ‘깍쟁이’가 많아졌다. 그러나 공정사회가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된

‘4億 名品女’ 와 ‘제빵왕 김탁구’

4억 명품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경아씨가 결국 방송사 엠넷에 소송을 걸었다. 김씨는 지난 7일 방송된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해 자신이 당시 입고 있던 의상과 액세서리, 명품 백 등이 4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악플에 시달렸고 국세청에는 불법증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되자 김씨는 방송에서 한 말은 자신이 사전 인터뷰에서 한 말을 제작진이 부풀려 적은 대본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도 그 같은 주장에 따른 것이다. 김씨의 소송 이외에 전 남편, 디자이너까지 상호 소송을 제기하면서 엠넷의 방송한 편은 뒤죽박죽 미국 속으로 빠져들었다. 문제는 김씨, 전 남편, 디자이너 등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민간인들의 진실 게입이 아니다. 엄연히 방송법에 규정된 케이블 방송사들의 도를 넘은 사치와 명품 선동이다.

김경아씨 사건 이전에도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재벌 3세들을 출연시켜 그들의 무차별적인 과소비를 그대로 보여주어 문제가 된 바 있다. 가히 케이블TV의 물질주의 선동은 방송의 체면과 형식적인 공영성을 그대로 뛰어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20대와 30대는 통계적으로도 일자리 난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는 성장궤도를 달리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는 줄어드는 기괴한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8월 청년 실업률이 8.5%까지 올랐다. 또한 전경련 통계에서 드러났듯이 20대와 30대 중 취직과 학업을 포기한 청년니트족 숫자

도 100만명이 넘어섰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난을 틈타 좌파 진영에서는 100개가 넘는 20대 정치조직을 건설하여 국민세금으로 모든 청년을 먹여살리자는 순도 100%의 사회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자체 선거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30대에서 35%의 차, 20대에서 20%의 차로 대패한 것도 바로 이러한 흐름 탓이다.

특별기고



변희재

·실크로드 CEO 포럼 대표

국에서는 매년 4만 여개의 기업이 창업되고 이중 1만개 이상을 20대와 30대 청년층이 맡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대학생의 92%가 창업의사를 갖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즉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활발히 창업을 하고 미래에도 기업을 일구면서 생산적인 일에 매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청년들이 도전해서 기업을 만드는 소재의 문학작품이 널리 유통되었고, 20세기 들어서는 영화, 드라마, 교양 등에서 이러한 청년 도전의 전통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는 20대 중반의 나이로 15조원대의 인터넷기업을 창업한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방송사들에게 시청률을 포기하라는 말은 조폭에게 폭력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다. 그러나 더 질 좋은 시청률을 추구해보라는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며, 청년 시청자들도 원하는 일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명품족으로 전락시키며, 상호 간의 위화감만 조장하는 일은 청년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식도,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방송사 간부들만을 위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

젊은 패기로 농구에 자신의 인생을 건 청춘들의 이야기 ‘마지막 승부’는 1993년도에 방영되었다. 그뒤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의 방송에서 도전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졌다가 2010년도에 ‘제빵왕 김탁구’가 나오게 되었다. 방송사 간부들은 시청률을 추구하더라도 최소한 자신들의 아들 딸, 손자와 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자세를 갖추면 어떨까?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은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터이니, 시청률면에서도 더 낮지 않겠냐는 말이다. [4]

케이블TV 물질주의 선동 度 넘어 젊은이 도전정신 다룬 프로 아쉬워

물론 케이블TV의 경우 지상파와 달리 공익성에 대한 책임감은 그리 크지 않다. 문제는 단지 하나의 케이블 TV 방송사의 일탈이 아니라, 이러한 비생산적인 이슈를 마구잡이로 퍼뜨리는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의 존재이다. 물론 이들 역시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핫이슈가 되므로 기사화했다고 변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물질주의에 빠져든 대한민국 청년층의 문제란 말이다. 그렇다면 더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역시 각종 통계를 보면 이러한 방송사와 언론사, 포털의 향연을 끝이끝대로 들을 수만은 없다. 대한민

그러나 이런 진취적인 모습들은 케이블TV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다.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는 물론 청년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드라마에서도 보기 어렵다. 김탁구라는 한 청년이 제빵업계의 1인자로 올라서는 소재를 다룬 ‘제빵왕 김탁구’가 무려 50%대의 시청률을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고 먹고, 명품이나 바르고 다니는 것을 시청자가 원하고 있다는 방송사와 언론사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가까운 것이다.

소비주의는 미국이 원조이다. 현재도 미국의 방송사들은 사치스러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19세

法은 萬人앞에 평등 해야 한다

옛날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의 강의가 생각난다. “우리나라 법은 ‘거미줄’과 같다”고 말이다. 내용인 즉 센 사람은 거미줄을 박차고 나가고 약한 사람은 거미줄 사이를 끼어 나가고 어중간 한 사람들만이 거미줄에 걸린다고 했다. 그러니까 뺄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이 법망에 걸려든다는 것이다. 요즘 사법부의 법 집행 과정을 보면 그 때 그 교수의 강의가 꼭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최근 8·15 광복절 특사를 보면서 너무 사면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꼭 힘들다. 어쩐지 석연치 않고 께맞춘 것 같은 부분이 많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과 법조인 경제계

인사 등 2,500여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를 비롯해 서청원 전 친박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에 법조 비리 인사도 줄줄이 사면 받았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다. 법무부가 이번 특별 사면에서 비리에 연루된 전직 관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2명을 복권시켜 슬그머니 변호사 자격을 되찾게 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복권 대상자 2,493명 가운데 정치인과 기업인 78명의 명단만 공개하고

時 論



김 휴 선

·분회 회우
·전 MBC 보도국부장
·현 KOBACO 공익광고
·협의회위원

법조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이들의 특사(特赦) 사실을 감췄다. 판검사가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때로부터 2년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이들 법조인 8명은 복권 덕분에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되찾게 됐다.

이를 지켜 보다 못한 한 시민이 이번 8·15 사면을 보고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이 사람은 제이슨 산업 대표 이영수씨다. 이 씨는 “이

번 사면 최종 결정자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

민의 의견을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또 “사면 혜택을 받은 권력형 범죄자들의 죄질은 소속된 조직의 이익을 위한 범죄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성낙인 법대교수는 “우리가 대통령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사면 시스템’은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의 판단이 성숙되게 하는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의해서 부정되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惡法이 天倫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세상은 말세(末世)인가 보다. 인륜(人倫)이 끝없이 추락하더니 이제 천륜(天倫)마저 무너지고 있다. 가족제도는 물론이고 혈통(血統)까지 망각하는 세태로 치닫고 있다.

얼마전 신문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법원이 외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기사였다. 내 용의 줄거리는 이러했다.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판사는 최모(57)씨 부부가 “외손자 김모(12)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게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양자로 입양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군이 입양결정으로 생모와 이모가 누나가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의 부모 조부모는 물론 이모도 입양청구에 동의하고 있어 가족질서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만약 이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아들을 동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가족법등 모든 법률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이다. 법은 인간의 지능에 의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주로 관습법(慣習法)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다. 이는 윤리(倫理)와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혈통이다. 부모 자식간은 인위적으로도 어쩔수 없는 섭리(攝理)의 철칙(鐵則)이다. 유전(遺傳)적인 천륜으로 맺어놓은 숙명적(宿命的)관계이다.

판사 당신의 엄청난 판단착오와 오

류(誤謬)로 인해 가족부(簿)에는 어머니가 누나로, 할아버지가 아버지로 등재될지 모르지만 유전자 자체를 바꿔 놓지는 못할 것이다.

또 “딸만 둘을 둔 최씨부부가 김군을 친양자로 입양해 대(代)를 잇게 하고 딸의 재혼장애 사유를 없애려고 하는 사정이 엿보이지만, 김군의 복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時 論



김 양 섭

- 본회 회우
- 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 한국씨족문화연구소장

위의 경우 대를 잇기 위해서라면 딸을 그대로 두고 외손자를 손자로 입적한다면 오히려 떼뻗하지 않겠는가. 성은 모계를 따라 최씨로 개성(改姓)해도 망발(妄發)은 면할 수가 있을거라 본다.

다음은 딸의 경우이다. 31세인 그녀는 미성년때 김군을 낳았고 세 번째 혼인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이정도면 자식이 있다는 것을 새 배우자

니가 누나, 할아버지가 아버지로 그리고 친척들의 손수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됐을때를 생각해야 한다. 과연 이때도 자신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될지가 의문스럽다. 그뿐아니라 전통 씨족문화가 말살하지 않은한 김군의 자손들이 겪어야할 고민과 수치의 기록도 간과 할 수 없다.

진실을 물어버리고 자식의 성을 바꾸다 못해 혈연의 관계까지 허물어 버리는 것이 행복추구에 적합한지 자못 의아심이 든다. 또 복리(福利)라 했다. 복리란 행복과 이익을 말한다. 그에게 당장의 성장에는 이익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평생을 사는동안 행복에 도움이 되리라고 볼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물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말이 윤리다.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로 인륜에 입각한 도덕이다. 그 기초는 가족에서부터 비롯 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했다. 즉 심신을 닦고 집안

을 다스릴 줄 알아야 정치를 할 수 있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입으로 노래처럼 윤리를 외치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바로 이 가족법이 윤리도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에 한발 앞서가는 지각없는 판사들의 이같은 결정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왔던 정통적인 도덕과 가족제도에 교란(攪亂)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한가정에 자손(子孫) 대대로 불행을 안겨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자못 우려스럽다. [국문]

外孫子를 아들로 입양하라는 황당한 판결 전통적 가족제도 혼란...자손 불화 부를수도

설명하고 있다.

딸만 둔 최씨부부가 대를 잇게 한다고 했다. 대를 잇는다는 것은 씨족(氏族)의 개념이다. 씨족은 가계(家系)에 의한 것이며 가계는 세계인류가 거의 부계(父系)혈통을 따라 이뤄지고 있다.

가족법은 노무현정권때 제정 또는 개정된 여러 악법중 하나이다. 호적법을 폐지, 가족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친부모 및 혈연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자식을 숨겨야 할 이유도 없다.

그녀가 친정과 인연을 끊고 산다면 모르지만 왕래를 한다면 아들을 동생이라 불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남편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심리적 갈등과 괴로움으로 인해 부녀자식간에 인연을 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뻔한 일이다.

그리고 또한 김군의 입장에서 보자. 지금은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판단할 나이가 아니다. 성장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어머

4면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도 매우 좋지 않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스폰서검사’ 사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혼돈스럽다. 이른바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민경식 특검팀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55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의 핵심인 ‘검사접대’ 의혹은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같은 법조계에서도 “검사는 봐주고 수사관만 잡는 특검이 됐다”면서 특검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수사 기간 중에도 같은 수사관끼리 고성으로 오갔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것 같다. 이번에 투입된 수사관만도 67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지난번 전·현직 검사 70

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던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에 비해, 이번 특검팀이 소환한 검사는 8명에 불과해 부실한 수사도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한쪽에서는 국민 세금을 들여가며 검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법조인들끼리 법관 또는 검사로서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복권시키며 감싸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장관 7명과 청장 2명 등 9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그 중에 총리와 장관 후보 2명은 결국 낙마를 했지만 대부분이 위장전입은 물론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금품수수, 병역기피, 거짓말, 선거자금 대출 등 비리에 연루되었다. 이를 보고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 위원은 “이번 청문회는 ‘죄송 청문회’가 됐다”며 “한 번은 몰라도 두

세 번 죄송할 만한 일을 한 후보는 국무위원 제안이 왔을 때 스스로 거절을 했어야 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을 바라본 국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 법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윗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지켜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반 국민들은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4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모두 6,894명으로 한해 평균 1,724명에 이른다고 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막말을 쏟아 낸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에서 회자(膾炙)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법을 꼬박꼬박 지키며 세금 잘

내고 질서 잘 지키고 하는데 위정자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아랫사람들은 따라 하지 마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번 청문회에서 좋은 학교를 보내기위한 ‘위장 전입’쯤은 괜찮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 “지방출신 재수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러 ‘위장전입’을 한다”고 한다. 혹여 ‘위장전입’이 만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민들 가운데는 “이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죄목으로 전과 자라는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가?”라고 개탄한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더기 사면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장관들의 임명 등이 반복된다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정신과 사법부의 권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문]

“北과 대화재개” 주장 허구성 노출

한반도에서 그 악순환의 역사가 되풀이 되려는가. 뉴욕 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지는 지난 5월말께 천안함폭침 한국관·민국제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고 이에 따라 이명박대통령이 대북교류협력전면단절을 선언(5·24선언),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때 관계정상화의 조짐이 나타나 는 오늘의 사태를 정확히 예단했다. 그는 칼럼 ‘한반도에서에서의 전쟁가능성 5가지’ (뉴욕 타임스 5월 28일자)에서 “한국 위기에는 통상 낮 익은 주기(周期)가 있다” 고했다. 그는 “북한은 잘 가꾸어진 거 리에서 원력을 휘두르며 멋대로 행패부리는 조폭처럼 일본상공으로 미사일을 날려 보내는가 하면 핵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 런가하면 지난 3월 한국 전함이 어뢰에 의 해 격침됐다고 뚜렷한 증거가 시사하듯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이번에도 북 한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하 겠다고 다짐을 한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인접국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은 전쟁은 말 할 것도 없 고 오래 대치해야 얻을 것이 없다고 서로 생각한다. 점점 제재에 물을 탄다. 그리고는 협상이 재개된다. 곧 북한은 인센티브나 자금지원을 해주면 핵프로그램을 일부 포기할 수 있다고 내비 친다. 결국 주기가 되풀이 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가 예측

한반도정세가 그의 예측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대통령의 교류단절선언, 한·미 합대와 중국합대의 한반도해역에서의 기싸 움, 백령도앞바다에서의 숨막히는 남·북 군사적 대치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던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 안으로는 남·북적십자회 담재개 등 화해무드재개신호가 있다. 이미 한국의 지원 쌀 5,000톤의 대북 수송이 시 작됐고 10월 이산가족상봉실시도 합의됐었 으나 북한의 금강산관광재개와 연계,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군실무자회담개최도 합의 됐다. 북은 9월초 신의주지역등 수해복구 지원요청으로 대화의 문을 다시 열면서 ‘북남사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희망했다. 북의 이 번 대남 평화공세의 폭과 깊이는 앞으로 의 협상의 진척상황 에의해 가려지겠지만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따른 2중의 제재를 풀어보려는 계산과 수해로 심화 된 경제난국의 돌파 를 지원받으려는 의 도가 담겨져 있다 하겠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약2년여 동안 정 체됐던 북한의 비핵 화를 목적으로 하고

천안함 폭침 없었던 일로 대선 안돼 좌파 중북노선 오히려 장애 될수도

있는 6자회담의 재개움직임이다. 우다웨이 중국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지난달 16~18 일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한국과 일본, 미국 을 줄이어 방문, 6자회담재개문제를 논의 했다. 이어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대북정책 특별대표도 12일 한국방문에 이어 도쿄,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했다.

북에 돌아나지 말아야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으로서는 기회와 도전을 맞게 된 것 이다. 과거 60여년동안 수많은 협상과 합의를 해왔지만 합의해도 멋대로 뒤집는 신뢰할 수 없는 ‘우리식대 로’의 북한과의 협상은 그 만큼 어려운 것 이다. 힘들게 합의해 놓은 협정이나 계약도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근본 문제의 하나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정화는 남·북양 측에 다 같이 필요불가결하다. 남이나 북이 나 상호간의 교류확대가 요구된다. 남으로

서도 세계선진국진입 을 위해 정치발전이 필요하고 경제의 선 진화가 요구된다. 북 으로서는 3대세습문 제의 원만한 타결, 경 제개발, 개혁·개방 등 체제의 존망이 걸 려있는 근원적인 문 제들이 쌓여있다. 뭇 보다 다급한 것은 빵 문제다. 만성적인 식 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 곳 은 아시아에서는 북 한뿐이다. 개혁·개방 이 빈곤탈출의 지름

길이라는 것은 중국의 경이적인 발전이 증 명한다. 한국은 현대판 개혁·개방의 원조 다. 북한이 원한다면 한국은 손을 뻗을 준 비가 돼있다. 개성공단이 말한다. 남·북간 에 원인이 가능하다. 이명박대통령은 대북 관계개선과 6자회담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 확인 했다.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은 15일 한 세미나에서 “대규모 대북인도 적 지원은 천안함사과가 전제돼야 하고, 6 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관건 이다”고 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측의 6자 회담재개제외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관철돼야 한 다. 문제는 북측이 천안함폭침에 대해 사과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은 청와대기습미수사건(68년), 미얀마 아웅 산묘소 테러사건(83년), 김현희 KAL기 폭 파사건(115명 사망·87년)등 지금까지 테 러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일이 없

다. 유엔안보리에서 천안함폭침과 관련, 무 관하다는 것을 입증 받은 북한이 사과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천안함폭침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는 받아내야 한다.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 고 있다. 김정일의 얼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뉴욕 타임스가 지적한 한국이 피해 로가 되는 그 낮 익은 치욕의 관행은 끊어 져야한다.

언론은 이념과 성향을 가릴것 없이 거의 다 북과의 대화재개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조선은 “...대화와 제재중 하나의 카드에만 몰입해서는 북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 다”며 “대한민국은 북한변수를 어떻게 다 루느냐에 따라 국가의 앞날이 결정되는 상 황에 처해 있다”고했다 (9월18일자 사설).

중앙, 동아, 문화, 한국, 서울 등 다 른 보수, 중도지들도 같은 입장이다. 한겨레는 ‘상당 규모, 적기 “쌀 지 원으로 남북관계 풀어야’”(9월8일자 사설)한다고 처음부터 쌀을 퍼줄 것 을 안달하고 있다. 그들은 김대중·노무현시대에 거의 연간 30만톤을 송출했다는 점을 들어 적어도 10만

톤은 돼야한다고 하나 군량미가 100만톤이 나 남아있다고 전해져 과연 쌀지원이 필 요한 가를 생각해한다. 이번 적십자회담에 서 대폭적인 쌀지원을 이산가족상봉 정례 화, 천안함사과등 현안과제와 연계한 것은 적절한 카드다. 아울러 군량미로의 전용을 막기위해 유통감시권도 요구해야 한다. 금 강산관광재개도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대 로 한국관광객피살에 대한 사과와 이후의 안전대책및 군이 임의로 파기한 현대아산 과의 계약 원상복원도 관철시켜야 한다.

한겨레등 친북좌파신문들은 누가 말 안 해도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북의 천안함폭침에 대한 상당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데 성공 한 친북좌파신문들이 이번에도 중북노선 추종에 혈안이 된다면 남·북대화에 이익 보다는 해(害)가 될 것이다. [4]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4’가 국내 예약판매를 시작하자 이를 만에 15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모으며 인기 물이를 하고 있다.

특정부위를 잡으면 수신감도가 떨어 지는 ‘안테나 게이트’ 파문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가 많은 한국에서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9월16일 현재 기존 모델과 아이폰4를 합쳐 101만 5000명을 돌파했다. 초기 얼리어답터 위주였던 고객 구성도 이제는 40,50대와 여성 비중이 각각 15%, 35%에 이를 만큼 스마트폰 대중 화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IT전문지 와이어드(Wired)는 특집기사에서 “월드와이드웹(WWW)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와이어드는 웹이 생겨난 초창기에 웹 기반의 IT전문지로 창간돼 웹과 함께

성장했다. 그런데 이 잡지가 역설적으 로 웹에 대해 ‘사망 진단’을 내린 것이 다. 이에 대해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포 스톤의 블로거들이 즉각 “웹은 죽지 않 았다”고 반론을 퍼 면서 웹의 생사여부 에 관한 논쟁이 벌 어지고 있다. ‘웹이 죽었다’는 것은 웹 과 함께 급성장한 구글, 야후 등 포털

스마트폰 돌풍과 WWW

時 論



천 상 기

- 본회 회우
- 전 일간스포츠 편집부국장
- 경기대 초빙교수

서비스는 물론 언론 사 등의 닷컴 웹사이트 미래도 어둡 다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트래픽 조 사기관에 따르면 웹 은 2000년 전체 인 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이 비율이 23%로 줄었다. 하락 추세 는 계속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

기가 폭발적으로 보급된 것도 넓은 화 면에 맞는 웹의 쇠퇴를 가져온 요인으 로 꼽힌다.

소비자들은 주소창에 ‘WWW’로 시작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야 하는 ‘웹’보다 버튼 하나로 필요한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application의 준말)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웹과 인터넷은 그 동안 서로 깊게 융합돼 이제는 둘을 구분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앱의 등장으로 웹 은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다.

이제 모바일 앱이 대세인 것으로 자 리매김 했다.

바야흐로 ‘TGif 시대’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국가 재난 방송 KBS 능력보도

초가을에 찾은 남산은 더 없이 푸르렀다. 건너다 보이는 북한산은 손에 잡힐 듯 가깝고,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고층 빌딩 뒤로는 인천 앞바다도 아슴푸레하게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난 남산의 모습이고 그 뒤에 숨겨진 속살은 만신창이 상처 투성이었다. 지난 번 태풍 곤파스가 휩쓸고 지나간 숲은 쓰러지거나 아예 뿌리째 뽑혀버린 소나무들로 등산로 곳곳이 막혀 있었다(9월 10일 MBC뉴스데스크,곤파스로 쓰러진 나무들 처리 골치). 여기에 옆친데 옆친격으로 추석 연휴에 서울 경기지역에 쏟아진 기습 폭우는 등산로의 풍성했던 휴일을 빼만 앙상하게 남은 참담한 모습으로 바뀌 버렸다. 9월21일 한낮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서울 경기지역의 폭우는 서울 광화문 일대까지 물에 잠기게 했고, 서울서부지역과 인천에서는 만여가구가 침수되기도 했다. 시간당 100mm의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한 허술한 서울의 하수도망은 과연 천재인가, 인재인가.

정부의 대응이 능력이라는 비난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왔고, 기상청은 기습에다 책임을 떠 넘기는 모습이었다. 국민세금 3500억원을 투입해 쏘아 올린 기상위성 천리안이나 550억원짜리 슈퍼 컴퓨터도 어차피 사람이 조작하고 또 해석하는 것이니까 기습에다 책임을 떠 넘기기 보단 차라리 그처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 하기가 어려웠다고 실토하는 편이 오히려 솔직해 보인다. 정부의 대응은 그렇다 치고 기상청이 아무리 재빨리 예보했다 하더라도 이를 국민에게 알릴 길이 없다면 말짱 허사다. 이때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국가 재난 방송이다. 시청자들은 그동안 귀가 따갑도록 KBS화면을 통해 KBS가 국가기간 재난방송사임을 들어왔고 이에 대해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어땠는가. 오후 1시에서 2시사이에 서울이 물바다가 됐는데도 정작 국가기간

재난방송사라고 자랑하던 KBS는 계속 정규방송만 내보내고 있었다. 막상 KBS가 기상특보를 처음 내보낸 시간은 오후 3시30분, 추석특집 장사 씨름대회를 중계방송하던중 5분간 방송한것이 처음이었다. 오후1시를 넘어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의 도로가 물에 잠기자 이미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정보를



신 대 군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서울 물바다 된 뒤에도 정규 방송만 인기프로 ‘1박2일’ 옥에 티 거슬러

주고 받고 확산시킴으로써, 트위터와 페이스북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위력을 한껏 발휘하고 있었다. 5천여 사원들이 모여 일하는 공룡방송 KBS가 특보 한번 준비하는데 이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가. 두둑한 추석 보너스를 받은 사원들이 3일간의 연휴에 회파람이나 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수재민들은 분노한다. 추석을 앞두고 지하방에 물이 차올라 추석은커녕 생계조차 막막한 수재민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이렇고도 시청료를 올려 달라며 시청자들을 설득할수 있을 것인가. 공무원 총동원령이 내려 졌지만 소집에 응한 것은 50%에도 못미쳤다는 것 보단 그래도 나왔다고 위로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다간 국가 재난방송으로서의 지위를 스마트폰과 시민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은 아닌가. 9월의 방송가는 수해방송 이외에도 술한 화제들이 들끓었다. 방송인

신정환이 거액의 도박빚 때문에 필리핀에서 귀국하지 못한다는 소식에서부터, 생이빨을 뽑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MC몽을 둘러싼 잡음 그리고 4억 명품녀에 얽힌 화제에 이르기까지 여의도 방송가는 바람 잘 날 없는 한달을 보내야만 했다. 출연자들을 둘러싼 이런 잡음들은 공정사회라는 화두와 함께 인

가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도 많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지난 9월19일 아침에 방송된 ‘지리산 둘레길을 가다’를 위주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 첫째, 주MC인 강호동의 오버액션은 때로는 프로그램에 활기를 띠면서도 옥에 티로 지적되고 있고 지나친 사투리도 고쳐야할 대상이다.

둘째, 출연진과 통화하는 감독의 반말은 시청자들로 부터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다. 감독과 출연자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연기가 시원치 않거나 NG를 계속 내게되면 야단을 맞는건 당연하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다 듣는 프로그램속에서 반말을 밥먹듯이 하고 이쪽에서는 계속 감독님, 감독님 하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는 출연자들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청자들까지도 가볍게 보는 언행이다.

셋째, 관객의 인위적인 반응을 지나치게 많이 삽입한다. 관객의 지나친 감탄사는 보는 이들을 짜증나게 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출연자들이 소개하는 음식점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속초에 갔을때 출연진이 찾은 함경도 아버지 마을은 그뒤에 관광명소가 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물리는 관광객과 이에 못 미치는 업소들의 불친절,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음식들을 보면 프로그램의 부작용을 실감하게 된다. 오죽했으면 “우리 음식점은 KBS나 MBC에 출연 하지 않았다”는 현수막을 걸고 장사하는 식당이 생겼을까를 제작진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1박2일’에 대한 기대는 크다. 출연자들의 팀 워크 해체로 프로그램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1박2일’이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본문 2면]

6면에서 이어집니다.

TGiF의 위상을 살펴보자.

T:Twitter(국내 스마트폰 보유 직장인 80%사용) G:Google(전 세계 검색 점유율 70%) i:iphone(아이폰4 3주만에 전 세계 300만 대 돌파) F:Facebook(국내회원 100만, 세계회원 5억명 돌파)

거침없이 돌진해오는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토종 서비스가 맥을 못추고 검색과 포털 사이트 시장까지 위협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하고 있다. 아이폰과 갤럭시폰의 경쟁을 애플과 삼성의 싸움으로 왜곡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것은 애플과 구글의 싸움이다. 싸움의 본질은 하드웨어인 단말기

에 있지 않고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애플의 서비스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앞세운 서비스가 벌이는 한판 승부다.

3000억 달러 정도의 하드웨어 시장이 아니라 1조2000억 달러가넘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시장에 던진 스티브 잡스의 도전장이 가진 의미를 알아야 한다. 정보통신 기기를 똑똑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지능을 첨부하려는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택한 것이다.

갤럭시S의 겉은 삼성이 만들었지만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는 세계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갤럭시S에는 구글 검색이 기본으로 들어있다. 최근 검색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스마트폰 열풍에 긴장하는 이유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원조 SNS ‘싸이월드’도 미국 서비스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쏟아내는 이슈에 묻혀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네이버나 싸이월드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해외에서 배워가려 했던 인기 서비스 였지만 지금은 경쟁 자체가 안 된다. 게다가 새로운 중소 인터넷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 혁명과 더불어 부상한 TGiF는 한국 시장의 강자들을 새롭게 글로벌 경쟁으로 내몰았다. 구글은 스마트폰 OS를 무기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세계인이 함께 쓰는 글로벌한 서비스로 한국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른 인터넷, 높은 개인용 컴퓨터 보급률을 자랑하며 인터넷 강국으로 자부했던 한국의 현주소는 이렇게 암울하다. 10년 전 닷컴 전성시대에 한국이 앞서 있었으나 앱 혁명시대에는 뒤쳐져 있다.

한국은 전화기를 음성통화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기기로 전환시키고 미국보다 앞서 소셜네트워크강사이트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주도권이 모두 미국으로 넘어갔다.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TV 전쟁에서도 기존 TV의 상식을 깨는 제품과 TV 앱이 출현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스티브 잡스가 전환기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었듯이 TV의 개념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제2의 스티브 잡스’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성공 뒤의 휴식에 취할 사치를 이 시대는 허락하지 않는다. 더 빨리 변하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게 ‘앱 혁명’시대의 먹이사슬이기 때문이다.

‘코리아 IT시계’는 2000년에 멈춰선 것은 아닌가...[본문 2면]

問島협약 101년... 領有權 새 爭點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국경은 압록강-백두산-두만강 선인 것처럼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실시하자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다.

간도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1870년 경 연이는 대흥에 의하여 민생이 피폐해지자 봉금령이 해이해진 상황에서 회령부사 홍남주가 민생고 해결을 위하여 두만강 건너편을 개간하게 하면서, 두만강 건너편을 '간도'라 지칭한 것이 최초이다. 이러한 조치가 실효를 거두자 주변 군의 호응으로 점차 확대되고, 나중에는 양전관을 파견하고 토지대장과 야초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을 '간도토지대장'이라고 불렀다.

간도는 크게 압록강 건너편을 서간도, 두만강 건너편을 동간도라 한다. 1880년대 조선과 청은 간도영유권을 두고 감계 회담을 두 차례나 가졌는데, 이 때 영유권을 두고 다투었던 지역은 동간도였다. 그런데 1909

년 청-일 간도협약에서 청-일 양국은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의 가장 남쪽 지류인 석을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동간도를 청의 영토로 귀속시켰다. 오늘날 중국측이 간도가 중국 땅이라는 법적 근거로 이 청-일 간도협약을 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은 1909년 청-일 간도협약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압록강-백두산-두만강 선의 국경체제가 법적으로 유효한가, 즉 간도가 중국 땅인가는 청-일 간도협약의 유효 여부에 달려있다.

1880년대 조선과 청의 영토분쟁이었던 간도영유권문제에 일본이 개입하게 된 것은 1905년의 소위 을사보호조약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 학계에서 밝혀지고 일본 학계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바와 같이 을사보호조약은 원천무효이다. 즉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조

특별기고



노영돈

· 인천대 법대교수

국의 보호국으로서 일본이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한편 또 설사 을사보호조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을사보호조약 자체의 내용에도 위반된 것인데, 그 제2조를 보면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교섭권만 대행할 뿐 조약체결권 자체는 여전히 대한제국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간도협약은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체결되었어야 하는 것이

및 협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청-일 간도협약은 어떠한 법리를 시도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이 의미는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이므로, 따라서 그 이전의 상태, 즉 조선과 청간에 감계회담을 하던 1880년대의 분쟁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이 그러한 분쟁상태에서 유효하게 합의하여 조약을 체결한다면, 설사 그것이 압록강-백두산-두만강 선이 되건 그와 다르게 확정되건 관계없이 유효한 국경획정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효 100년설이 우리나라 세간에 회자된 바 있다. 국제법상 시효제도를 살펴보면 실정국제법, 즉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상 시효제도에 대한 법규칙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언론이 그 특유의 감각을 활용하여 청-일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을 기점으로 100년이 되는 2009년까지 우리 정부가 중국에 간도영유권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고자 100년설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법상

1870년부터 두만강 건너편 개발 시작 淸-日간 조약 무효...국경획정 관심 고조

약체결권자, 즉 대한제국황제와 일왕의 비준도 없었으므로 성립절차가 완료되지도 못한 불성립의 것이다. 또 설사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효력요건 중의 하나로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일본의 이등박문 일행이 대한제국 대신 8명에게 강박을 가하여 체결한 것인데,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현대국제법은 물론이고 제국주의에 종사하던 당시의 국제법상으로도 원천무효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 이유로 무효인 조약의 대표적인 예로 지목되었다. 이와 같이 무효인 을사보호조약을 근거로 대한제

다. 따라서 일본이 직접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권한없는 것으로 무효이다.

다른 한편 청-일 간도협약을 국제조약법상 제3국을 위한 조약의 법리를 적용해 보더라도 전통적으로 국제조약법은 "약속은 제3국에게 해롭게도 이롭게도 하지 않는다(pacta tertiis nec nocent nec prosunt)"는 원칙이 이미 확립되어 있어서 청-일 간도협약은 대한제국에 효력이 없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1952년 체결된 중-일 평화조약 제4조에서는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시효제도가 확립된 바도 없거니와 100년설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간도협약 체결 10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도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간도영유권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첨언할 것은 법리상(취득)시효제도는 원래 정당한 법적 권원이 없는 자가 새롭게 시효로써 권원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국이 간도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한다면 중국에게 원래 간도영유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4]

건강포럼 '금연' 강의 큰공감

10월 16일엔 탈북예술인 초청행사

"금연" - 반드시 담배는 끊어야 합니다. 담배는 모든 암,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 건강포럼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담배를 끊으신 분들로 제가 알고있어 금연 말씀은 안드립니만 자제분들에게 왜 담배는 끊어야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9월 11일 열린 정례 '건강포럼'에서 강사인 이윤수 박사(비뇨기과 전문의)는 "요즘 50대 후반에는 금연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들의 흡연은 급증하는 추세며 특히 명동거리에서 나가보면 앓된 아가씨들도 길거리에서 버젓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해로운 담배의 피해를 우리 회원가족이 당하지 않기 위해선 자녀

들에게 무작정 담배는 나쁘니 끊어야 할 것이 아니라 왜 나쁜지, 왜 끊어야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얘기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담배는 폐암과 후두암의 주범인 동시에 방광암도 마찬가지인데 흡연으로 몸속에 들어간 니코틴이 콩팥에서 걸러지는 과정에서 방광 점막에 노출돼 화학물질과 접촉하게되면 피부변질을 가져오면서 이것이 암으로 발전되는데 방광암의 80%는 담배피우는 사람이 걸리죠. 또 심장에 문제있는 사람이 흡연하게 되면 니코틴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 관상동맥이 막히게되면 심장발작을 가져오거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흡연자의 30%는 우울증에



▲ 금연 강의를 하는 이윤수 박사.

걸려있으며 공황장애에 걸릴 확률이 16배나 높고 정신분열환자의 90%는 니코틴 중독자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 사람 4~5명중 1명이 담배와 관련해 사망하고 있으며 정신과에서는 흡연 그 자체를 질병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한것은 흡연자 가운데 3분의2 가량이 자신이 흡연하는데 대해 불만을 갖고있는데 이중 70%가 금연을 원하고 있다는것이 며 나머지 30%는 금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불과 2~3%만이 금연에 성공 할 뿐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가 흡연을 할 경우 "당신의 흡연이 사랑하는 아이를 태우고 있으며 아울러 좋은 남편(아내)으로서도 실격이라며 실제로 부모가 실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아이들의 소변에서 니코틴 농도가 평소의 14배가 검출되고 있으며 혹, 밖에서 흡연하고 집에 들어가더라도 8배가 검출 되고 있어 결론적으로 1인용 흡연은 없다는 것이며 이렇듯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9면으로 이어집니다.

東海 명칭 되찾기 외교노력 집중할 때

우리의 바다 동해가 한민족에게 소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해는 수 천년간 한국인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얼마나 소중한면 애국가 첫 절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동해(East Sea)가 국제지도와 국제사회에선 ‘동해’가 아닌 ‘일본해’ (Sea of Japan)로 표기되고 ‘일본해’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관심도 많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켜야 할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8월 20~22일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제16회 바다이름에 관한 국제세미나’는 어느 회의 때 보다 한국에 긍정적인 움직임과 우리의 활동 방향이 제기된 회의였다. 한국을 비롯,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헝가리 남아공화국등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해양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엔 10년 만에 일본 학자들이 참석해 더욱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세미나는 해양명칭을 둘러싸고 분쟁중인 국제적 사례와 국제 법적 해석, 국제관계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한국과 일본간 분쟁 중인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명칭 문제에 큰 관심이 집중됐다.

각국의 학자들과 해양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중 빼앗긴 ‘동해’ 이름대신 ‘일본해’ 이름을 국제사회에서 단독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유엔의 결의안대로 두 이름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그 근거는 그동안 한국이 유엔등 국제사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역사적 사실, 즉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비롯한 주권을 박탈하고 강제병합한 후인 1929년, 국제 해양명칭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방적으로 낸 동해해역의 ‘일본해’ 명칭 사용안을 IHO가 채택함으로써 동해 명칭이 국제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동해 명칭은 역사적으로 지난 2000여년 동안 한민족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며 일본의 고지도와 서양의 고지도에서도 ‘동해’로 표기되어 온 것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이상태 한국국제문화화대학원 석좌교수, 김신 경희대학 교수)

한국은 지명 분쟁중인 두 당사국간 단일 명칭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두 지명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안을 받아들이며

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측 주장에 대해 미국의 존 레니 쇼트 교수(메릴랜드 대학), 오스트리아의 이즐데 하우스너 교수(오스트리아 학술원), 밀란 오로젠 아다미치 교수(슬로베니아 학술원) 등 여러 전문 학자들이 한국측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에서 참석한 청룡 교수(베이징 언어문

문명호 · 본회 논설 고문 · 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헤이그 국제세미나에서 토론하는 문명호 회우.

같은 유럽인들에 의해 표기된 ‘국제사회 통용 명칭’(globalized name)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측은 ‘동해’가 해양명칭이 아닌란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동해’와 ‘조선해’는 같은 바다를 가리키며 일본만이 ‘조선해’라고 표기했다고 반박했

돌아 갔다면서 일본 외교관이 어떻게 그의 헤이그 회의 참석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놀라워 했다. 일본이 동해 명칭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 전문가들과 인사들에게 집요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은 관계된 외국 인사들을 아무 부담없이 일본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홍보와 외교적 노력은 예산이나 인적 자원면에서 견줄 바가 못된다.

이같은 여건하에서 국제해양 전문가들 간에 ‘일본해’ 단독 표기는 적절하지 않으며 ‘동해’ ‘일본해’ 병기가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겐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같은 국제적 흐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유엔과 국제수로기구 등 국제기구에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가는 정부와 동북아역사재단같은 민간 기구가 맡아야 할 역할이다. 세계 각국의 한국지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동해’ 명칭을 공식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지명위원회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으며 병기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지명위원회의 지명 표기는 미국 정부는 물론 지도 제작사, 구글과 야후 등 다국적 포털과 소프트웨어 업체등이 지명 표기 때 표준으로 삼고 있어 미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지난 7월 미해군이 동

日帝때 ‘일본해’로 바꾼것 바로잡아야 헤이그 국제회의 두이름 ‘併記’에 공감

화대학)는 근대 중국 역사에서 독보적인 ‘동해’ 전문가인 청(淸)시대의 학자 유안웨이(魏源)의 연구를 인용, 유안 웨이의 지도가 역사적 지리적 고증과 함께 한반도의 동쪽 바다가 1000년 이상 ‘동해’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동안 중국 학자들이 이 국제회의에 참가했지만 한국의 ‘동해’를 적극 뒷받침해 준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측 주장에 대해 일본 학자들의 반론은 거셌다. 야지 마사타카 교수(요코하마 국립대학)는 ‘동해’란 해양 명칭이 아니며 지리상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 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고지도엔 ‘동해’란 표기는 없으며 ‘조선해’라고 되어 있다고 ‘동해’ 자체를 부인했다. 또 한국측이 주장하는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본해’(Sea of Japan) 명칭 사용안을 냈다는 데 대해 국제수로기구 제안 이전부터 국제사회가 ‘일본해’ 명칭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내세웠다. 결론적으로 야지 마사타카 교수와 와타나베 코헤이 교수(테이쿄 대학)는 유럽의 고지도와 문헌을 이용, 1602년 ‘일본해’라고 표기한 마테오 리치

다. 또 당시 아시아의 역사 지리 문화를 잘 모르는 유럽인들의 명칭 표기는 세계적으로 공인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고지도와 역사적 문헌에 나오는 ‘동해’ 명칭은 세계적 공인 거리가 못 된다는 것인가 하고 따졌다.

열띤 토론을 통해 나온 이번 회의의 핵심은 토속지명(endonym)을 그대로 번역한 외래지명(exonym)도 병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동해는 토속지명이며 ‘East Sea’는 이를 그대로 번역한 외래지명이다. 따라서 이같은 움직임은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외래지명 병기안을 인정해 준다면 IHO의 채택 없이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엔 피터 레이퍼 전 유엔지명전문가회의 의장을 비롯한 폴 우드만 전 영국지명위원회 사무총장등 국제 지명 문제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슬로베니아의 밀란 오로젠 아다미치 교수는 그가 헤이그 회의에 오기 전 한 일본 외교관의 방문을 받았으며 이 외교관은 ‘일본해’ 표기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자료들을 주고

해상에서 실시한 한·미연합훈련 장소를 ‘동해’로 표기한 지 하루만에 ‘일본해’로 정정해 논란이 됐다. 일본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지도에도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지명위원회의 ‘일본해’ 표기 사용에 따른 것이다. 미국지명위원회의 ‘일본해’ 표기는 통례적으로 사용해 온 가이드 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감안됐을 것이다. 중국도 현재로선 한국의 ‘동해’를 이해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지난 천안함 사건과 이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 때 드러냈듯 ‘서해엔 공해가 없다’는 태도여서 서해를 둘러싸고 언제 한국과 부딪칠 지 알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빼앗긴 ‘동해’ 명칭을 되찾기 위한 정부나 민간기구의 외교적 노력은 먼저 미국을 주 타깃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말할것도 없이 유엔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은 어느 나라보다 큰 것이 국제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문]

8면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이 박사는 새로 직장을 얻어야 할 20대 청년의 흡연은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그 한 예로서 오명전 건국대 총장은 수험생이 동점일 경우 비흡연자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공언), 30대엔 흡연이 자녀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며, 40~50대는 성생활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려 흡연이 원만한 가정생활에 방해가 되며, 50,60대엔 당뇨병 발생을 가져오고 장수에도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소위 노인냄새의 주범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혹시 대한언론인회 회원 가운데 흡연하는 자녀가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줘 금연 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을 당부했다.

10월 건강포럼은 16일(토)오후 1시 50분부터 명동에 있는 ‘이운수·조성완 비노기과’에서 열린다. 이번 달엔 포럼주제를 다양화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인이 본 남한 사회’란 주제로 ‘겨레하나예술단’의 송낙환 겨레하나예술단 회장, 북한 청진 제1고등을 약교사였던 이 항 씨의 아코디온 연주, 평북 예술선전대 화술원 출신의

박경애 씨등이 나와 강의와 아코디온을 연주 할 계획이다. 건강포럼 개강 이후 대거 3명의 연사가 나오기는 처음이며 특히 탈북인사들이 나오는 것에 그 큰 뜻이 있다.

이보길 편집위원

言論 실무 - 이론 넘나든 외길... 판소리

반세기 동안 언론 실무와 이론 분야를 넘나들며 언론 외길을 걸어온 원로 언론인. 신문기자, 논설위원, 신문사 사장, 방송단체장으로 언론 현장에서 35년을 보냈다. 언론연구원 임원과 대학 전임교수 10여년에다 신문사 근무를 하면서 7개 대학에 겸임교수로 출강 한 햇수(15년)를 포함하면 언론 이론 전수를 위해 강단에 선 기간도 25년을 헤아린다.

13년간 영자신문 편집을 하면서 서구의 선진 편집기법을 도입, 신문편집의 불모지 상태였던 1950~60년대 한국신문에 편집체계의 틀을 잡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언론진흥재단 전신인 한국언론연구원 발족 준비요원으로 참여한 것을 비롯, 전남일보 창간의 산파역으로 초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대학교에 언론전문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초대 원장을 지냈다. 케이블 TV방송협회 회장을 맡아 외환위기로 빈사상태에 빠졌던 유선방송업계를 기사회생시켰다.

언론이론을 쌓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다.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에서 석사와정을 밟고 연세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논문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독일 베를린, 미국 컬럼비아대, 일본 동경대학교의 신문연구소에서 각각 소정의 연수과정을 밟았다. 저서(8권)와 번역서를 합쳐 12권의 저술과 80건의 언론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崔鍾朱 회우. 올해 팔순이다. 9월 17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자택을 방문, 인터뷰를 했다.

연세에 비해 젊어 보이시는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가벼운 등산을 자주 합니다. 요즘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주로 북한산 진관사 쪽으로 갑니다. 시니어스 타워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구요. 술 담배를 안 하고 판소리를 즐겨 부릅니다.”

판소리를 언제 배우셨습니까.

“언론계 은퇴후 2004~7년에 국립극장 문화학교에서 박송희 명창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직접 장구를 치며 판소리 일부를 들려 주었다. 80세 노인 목소리치고는 힘과 패기가 넘쳐 흘렀다.

시니어스 타워에는 언제 입주하셨나요.
“2008년 3월입니다. 36평형 아파트인데 4억8천만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관리소 측에서 유료 제공합니다. 음식을 안 만들고 설거지를 안 하니 편합니다. 수영장과 사우나가 달린 헬스장과 의료시설, 당구장, 바둑실 등 각종 취미 생활 공간과 휴게실, 아트 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던 날 저녁7시 아트 홀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합창단 멤버로 참가하기 위해 오후 3시에 리허설을 한다고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27>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자택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한 최종수 회우와 부인 손인화 여사.

회우



2006년 11월 한창 '전남일보' 출판기념회

英字신문 만들며 西歐 선진편집 기법 도 전남일보 창간...케이블TV 협회장으로 방

했다. 부인은 미술동호인회에 가입, 여가 활동을 한다.

여유 자금이 있어야 입주 할 수 있겠네요. 한 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아파트 평수와 가구별 씀씀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한 달에 관리비로 평균 1백50만원 가량 납니다. 하루 두끼 정도 식사를 합니다. 입주자는 한 끼에 1인당 6천원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저희의 경우 관리비의 약 절반은 부부의 두끼 음식값이 차지하는 셈입니다. 헬스 장 이용은 1인당 월 6만원이고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1만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올해 책을 3권이나 내셨는데...

“그동안 써놓았던 책들입니다. 집안 내력에 관한 책 2권과 여행기 1권입니

다. ‘학은(鶴隱·할아버지 호) 가문의 가승보(家乘譜)’ ‘수성(隋城) 최씨의 뿌리와 즐기’ ‘80 노부부 동유럽을 가다’가 책 제목입니다. 부부 합작 수필집을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전남 무안 태생. 목포 중 고등학교와 서울대 문리대 영문학과를 졸업, 1956년 한국일보 기자 수습4기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수습 후 당시 외신부장인 洪承勉씨가 외신부로 발령내 2년간 외신 기자로 일했습니다. 崔秉宇 코리아 타임스 편집국장이 권유해 한국일보 자매지인 코리아 타임스로 옮겨 편집부장, 부국장을 지냈습니다. 최 국장은 대만 금문도에 특과대 취재 중 순직했죠. 영암 출신으로 부친이 저의 부친 친구입니다.”

1972년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돼 81년 신문사를 떠날 때까지 사설을 썼다.

26년이나 몸담았던 한국일보를 왜 그만두셨습니까.

“문공부에서 언론연구원을 설립하는데 누군가가 저를 설립요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갈 마음이 없었지만 언론인 자질 향상을 위해 내가 그동안 공부해 온 지식을 전수해 보자는 욕구가 생겨 전직을 결심했습니다.”

연수, 연구 담당 이사를 차례로 지내셨는데 연구원은 왜 그만두셨습니까.

“어느 날 임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내라고 해요. 문공부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사표는 모두 반려하고 저만 수리하더군요. 정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정부 비판을 많이 하는 저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았어요.”

소리로 老後 즐긴다

초대석

최종수

- 전 한국일본논설위원
- 전 전남일보 사장
- 전 광주대학교 언론대학원 원장
- 전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인터뷰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 중부대초빙교수)



장구를 치고 판소리를 부르는 최종수 회우.



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종수의 언론반세기 (전남일보 창간비...)' 행사. 왼쪽부터 제재형, 서규석, 최종수, 조용중씨.

입해 보급 방송도 섭렵

전남일보 초대 사장이 되신 얘기를 해주시죠.

“연구원을 나와 광주대학교에 정교수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훈동 조선내화 회장께서 지방 신문을 하나만 들어 보자고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고향에 좋은 신문을 하나만 들어 보자는 생각을 펼쳐버릴 수 없어 다시 언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장 퇴임 후 한국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객원)으로 있으면서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교수로 부임했다. 언론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초대 원장이 돼 1997년까지 대학에 몸담았다. 1998년 김大中대통령 집권 직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으로 회장에 선임돼 3대 회장으로 4년 임기를 마치고 은퇴했다. 언론인 차權相 회우는 ‘崔鍾洙 언론반세기, 전남일보 창간 비망록’ 제목의

책 앞머리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발췌) “그가 감수성이 강한 청년기에 영자지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전쟁이 멎은 50년대 중엽에 비로소 미국식 저널리즘이 이 땅에 싹트기 시작했는데 변화와 개혁의 통로는 외국통신, 뉴욕타임스 등 선진국 언론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것이었다. (미국식 저널리즘으로의) 변화와 개혁의 문을 여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車培根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최종수 언론 반세기’에서 “鶴山 崔鍾洙 박사의 업적은 우리나라 신문편집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1978년 펴낸 한국신문편집론은 신문편집에 관한 체계적 이론서로서 각 대학 신문방송학과에서 교과서로 널리 사용했다”고 밝혔다.

언론인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와 아쉬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한국 신문편집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한 점을 큰 보람으로 여깁니다. 저는 본래 소설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사회실정을 알기 위해 사회부 기자를 원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아쉽습니다.”

언론계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언론인들을 꼽는다면...

“張基榮 사주, 洪承勉, 崔秉宇, 朱建鎬, 趙世衡, 朴權相, 趙庸中 씨 등입니다. 趙世衡 씨는 관훈클럽 총무를 두 차례 지냈습니다. 1977년 23대 때 저는 편집위원을 했습니다. 신영연구기금을 조성 설립한 것도 그 때입니다.”

요즘 한국 언론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신문 조간 한 가지를 구독하는데 날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정독하는 편입니다. 편집이나 글 솜씨는 좋아졌습니다. 읽을 거리도 많구요. 그런데 언론으로서 비판 정신이 약해 신문 다운 맛이 없어요. 흥미가 좀 떨어집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밤 11시 취침한다. 학교 동문들과 자주 어울리고 대한언론인회와 관훈클럽 모임에 자주 나간다. 판소리 모임에도 들른다. 수성 최씨 호남 종친회장과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고문으로 있다. 부친 고 崔泰周씨는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국가유공자. 최 회우는 광주학생운동 유공자 후손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부인과 1녀2남 밑으로 5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동갑내기 부인 孫仁和 여사는 교직생활을 거쳐 40년간 출판사에서 근무한 도서 편집 전문가. 화가와 동화작가이기도 하다. 창작 동화 ‘으악 도깨비다’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80노부부 동유럽을 가다’ 여행기는 부부 합작품. 최 회우가 글 쓰고 부인이

斷想

태풍 곤파스의 교훈

태풍 곤파스가 휩쓸고 간 주말 이웃에 사는 3살짜리 손자를 불렀다.

집 근처의 울동공원을 데리고 산책할 생각이었다.

탄천으로 흐르는 계곡물이 꽤 불었을 성싶어 물 구경도 시키고 호수의 물고기, 오리와 공원의 비둘기들도 보여주려고 이들에게 줄 먹이도 준비했다. 어쩌면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 취해보고 싶다는 내 욕심이 더 컸을 것도 같다. 물 흐르는 소리를 참 좋아 하기 때문이다.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늘 평온해 지고 봄별을 찍는 것 같은 나른함을 느끼곤 한다.

어! 그런데 아내와 손자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공원에 들어선 순간 뽕히고 쓰러진 나무들의 처절함이 충격으로 다가왔고 물 흐르는 소리는 평온하기 보다는 무서운 연상(聯想)으로 청각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어린 손자에게 평화로움을 보여주고 아름다움을 선물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얼크러져 버렸다.

길을 막고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려고 공원 관리소에서 응급으로 잘라낸 나무 등걸들의 허연 모습이 괴기(怪奇)스러움을 연출하고 있었다. 다음 날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야산에도 많은 나무들이 넘어지고 찢긴 모습으로 늘어져 있었다.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큰 나무들이 더 많이 쓰러진 것 같았다. 그리고 어제 울동 공원에서도 큰 나무들이 뿌리가 뽑힌 채 나뒹굴어 있었던 모습이 되살아났다.

태풍 곤파스는 큰 나무들을 더 많이 패대기치며 달려간 것 같다. 태풍에 맞서는 큰 나무의 오만(傲慢)함에 더 큰 징벌을 내린 것일까? 당신들의 오만함을 회개하라면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기도 했다. 큰 나무 중에서도 뿌리가 뽑힌 채 넘어진 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결과로 보였고 중간이 뚝 부러져 버려 흰 살이 드러난 것은 중산층이 몰락한 사회의 비극을 암시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었다.

독이나 비탈에 심어진 나무가 낮은 쪽으로 쓰러진 것은 균형을 잡지 못한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하신 성현(聖賢)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 아



호천웅

- 본보 편집위원
- 전KBSLA지국장
- 수필가

닌가? 겹가지가 부러지고 잔가지가 잘려진 상처를 안고 지친 모습으로 버티고 서있는 나무는 욕심을 버리고 가족과 측근들을 멀리하는 등의 자기희생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조식을 살린 어느 공직자(公職者)의 모습에 비유되는 것이었다.

며칠 뒤 선영(先塋)의 별초 때문에 찾은 고향의 친척 형님 말씀이 시사(示唆)적이었다. 한학에 밝으시고 어렸을 적

부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내게는 스승 같은 분이시다.

얼마 전 군(郡)에 신청해서 산의 한 부분을 간벌(間伐)했는데 간벌한 산의 소나무들은 이번 태풍으로 상당수가 뿌리째 뽑히거나 중간이 잘려 나가는 등의 적지 않은 피해를 당했으나 간벌하지 않은 소나무들은 잔가지가 좀 잘리기는 했으나 무사했다는 설명이었다.

간벌로 행해진 산은 태풍이 달리는 고속도로 역할을 해 피해가 컸지만 물려있는 나무들은 힘을 합쳐 태풍을 막아 무사했다는 풀이였다.

간벌은 나무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마련해 주어 햇빛도 충분히 받게 하고 병충해도 막아주는 효과적인 산림 육성 방법의 하나이다.

태평성대(太平盛代)에는 멀리 떨어져 살고 이웃 도움이 없어도 잘 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이웃과 가까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두레 정신을 곤파스가 이웃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새삼 가르쳐 주고 간 것 같다.

평소에 자주 찾아 뵙지 못하는 아우에 대한 섭섭함을 은근히 드러내시는 듯도 싶어 형님의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봐야했다.

곤파스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하느니라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되새겨 봤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덕목(德目), 순리대로 사는 지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슬기, 그리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삶, 자기희생을 감내하는 용기와 절제.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교훈.

태풍 곤파스가 활쾨고 간 산야(山野)를 보면서 더듬어 보는 사념(思念)들이었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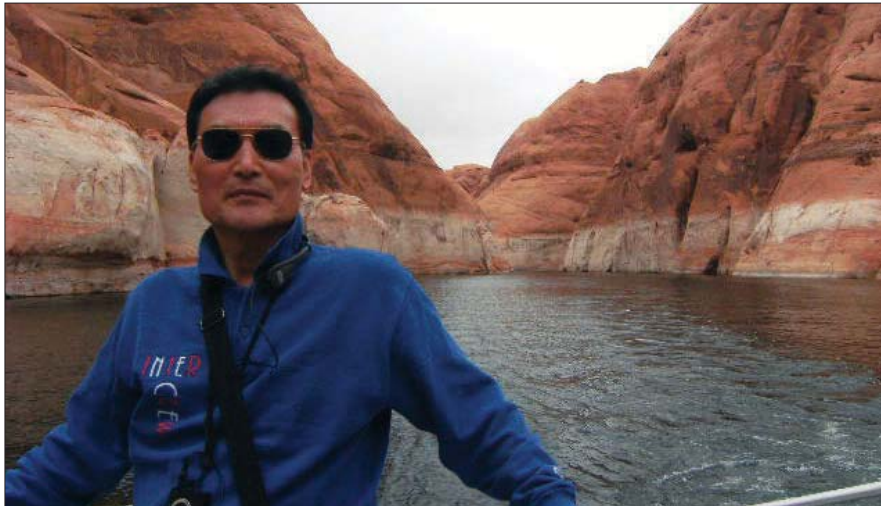
사진 찍고 스케치 했다. 서울대와 미 브라운대학원을 졸업한 딸은 대학교수(미생물학 전공), 큰 아들은 공기업 간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작은 아들은 사업을 한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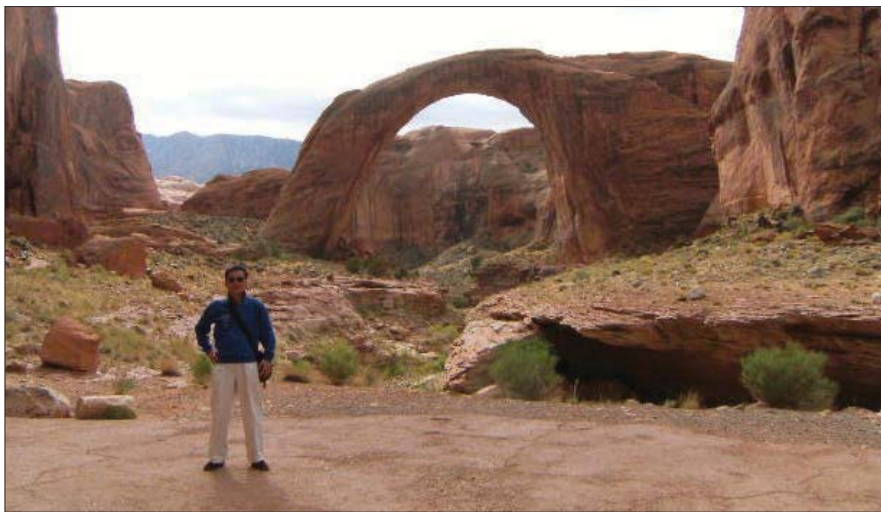
웅장한 自然앞 人間은 초라했다

美서부 ‘레이크 파웰’ 여행기

김 화 · 본회 전문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현 데일리리뷰 고문



캐슬 락 사이를 비껴가며 항해중인 유람선 맨 뒤에 서서.



인디언의 성지인 레인보 브리지 앞에 선 필자.

여행은 일상의 탈출이다. 탈출은 자유를 의미한다. 누가 삶이 짜증나고 인생이 권태로우면 여행을 떠나라고 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 나는 9월 3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떠나는 델타 항공에 가볍게 몸을 싣었다. 일본 나리타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솔트레이크 시티로 직행했다. 나리타공항에서는 3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직행하는 비행편이 없다. 미국 본토 포틀랜드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도메스틱으로 갈아타야 한다. 3곳을 모두 거쳐 솔트레이크 시티로 갔지만 나에게에는 나리타에서 환승하는 게 제일 편했다. 나리타국제공항 안에 있는 간이 푸드점에서 4쪽의 스시를 세금 포함 8달러에 사서 허기를 달랬다. 먹을 만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살고 있는 딸 집에 여장을 풀고 15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온 여독을 녹이는데 이틀이 걸렸다. 나이와 함께 늙어가는 체력을 실감했다. 여독이 풀리자 나는 딸과 사위를 독촉해 6일 아침 일찍 레이크 파웰(Lake Powell)을 향해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 레이크 파웰은 거대한 호수로 한국에서는 그랜드 캐년이나 옐로스톤보다 덜 알려졌지만 호수 가운데 모래산에 있는 하늘에 걸린 레인보 브리지(Rainbow Bridge) 때문에 미국 국내나 세계의 사진작가나 동호인들에게는 이미 유명해진 관광지다. 레이크 파웰은 95%가 유타주에, 5%가 아리조나주에 걸쳐있는 바다 같은 호수로 유람선이 출발하는 선착장이 아리조나주 와입(Wahweap)이라는 소읍에 있어 그 곳까지 가야만 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와입까지는 자동차로 꼬박 7시간이 걸리는데 단조로운 사막 길을 7시간 달린다는 게 고역을 넘어 고행이었다. 다행히 사막이라도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로만 뒤덮인 삭막하고 풀 한포기 없는 건조한 사막이 아니라 하이웨이 옆으로 키 작은 선인장과 모래바닥에 붙어있는 큰 호박만한 나무들이 땅을 덮고 있어 그나마 눈의 피로를 덜어 주었다. 그리고 군데군데 스프링 클러에서 물을 계속 끌어대는 거대한 목초지에 소와 말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평화로운 목장 풍경도 보였다. 그러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 풀 한포기 찾아볼 수 없는 적황색의 거대한 민둥산이 인간들이 달리는 하이웨이를 압박하듯이 내려다보며 펼쳐져있다. 멀리서 서부활극에 나오는 인디언의 북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것 같다. 동행한 딸이 손가락으로 멀리 떨어진 거대한 황토빛 흩산을 가리키며 산 아래에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다고 말한다. 이 땅의 원주인이요, 원주민인 인디언은 백인 정복자에게 쫓겨 제한된 땅 안에서 술과 마약에 찌들리면서도 옛날 광활한 땅을 호령하던 영화관을 반추하고 있을까. 이들에게는 추억이 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가슴이 아프다.

지루한 사막 길을 달리다 보면 제한속도를 깜박하기 쉽다. 65마일에서 55마일로 바뀌는 팻말을 늦게 보고 속도를 줄이려는 찰나에 그만 교통경찰에 덜컥 걸렸다. 경찰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계속 우

리 차를 따라왔다. 차 정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한 참을 달리다가 정차했다. 운전하던 사위는 경찰의 요구대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제시했다. 교통경찰은 잠시 동안 자신의 차로 돌아가서 증명서 확인과 교통위반 기록을 점검한 후 우리에게 왔다. 딱지를 떼면 벌금 200달러와 운전안전교육까지 받아야 한다. 돈과 시간의 낭비다. 사위는 백인 교통경찰에게 위반 상황설명을 하고 한국에서 온 부모님 모시고 레이크 파웰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뜻밖에도 교통경찰은 딱지를 떼지 않고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돌려줬다. 우리는 탱크를 연발하며 콧노래를 부르면서 와입에 도착했다. 세상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도 인정은 있고 선량한 사람은 있는가보다.

와입에 도착한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한국음식점을 찾았으나 없었다. 패스트푸드점과 중국집, 멕시코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보일 뿐이다. 외국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 먹는 문제다. 여행 전문가들은 현지에 가면 현지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만 70여년 간 한국음식으로 체질화된 식성을 어찌 하루아침에 바꾸겠는가. 선착장과 리조트에 가기 위해선 필히 게이트를 지나야 하는데 차 한 대 당 15달러 티켓을 사야만 한다. 징수원은 이 방인에게 비싼 입장료가 미안했던지 “이 돈은 수질보호에 사용 된다”고 사족까지 달았다. 여행은 어차피 겨우저 흘러듯 돈을 뿌리고 다녀야 한다. 이 입장 티켓은 7

일간 게이트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선착장에 인접한 곳에 있는 숙박시설은 2층짜리 단조로운 시멘트 건물의 5개 동이 전부였다. 호텔도 없었다. 시설도 별로였지만 하루 숙박비 200달러의 콘도에 7시간이나 자동차에 시달려온 무거운 몸을 누였다. 숙소 유리창 너머로 바다 같은 호수 위에 유람선과 요트와 모터보트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시선 멀리에는 흰색과 옅은 벽돌색이 어우러진 거대한 모래산이 병풍처럼 펼쳐져있었다. 모래산 사이를 물이 유유히 흘러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와 아내 딸과 사위 4명의 우리 일행은 유람선을 탔다. 승선하기 전 리조트 구내식당에서 1인 당 14달러하는 뷔페로 이른 아침을 먹었다. 유람선은 하루 두 번 운행하는데 오전 7시와 오후 1시 출발한다. 우리는 사막의 뜨거운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오전 승선을 택했다. 유람선 요금은 1인당 세금 포함 122달러. 한화로 14만원 정도의 비싼 요금이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레인보 브리지를 안 볼 수는 없었다. 승선할 때 통역 헤드셋을 나눠줬다. 유람선 항해 중 주변 경관 해설을 5개국어로 들려준다.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다. 한국어는 없었다. 나는 헤드셋을 받으면서 “한국어는 없나?”고 넌지시 물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 승무원은 “죄송하다 곧 준비하겠습니다”면서 “안녕하세요”하고 한국말로 인사했다. 그는 미 공군으로 수원에서 살았으며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친

절하고 오는 말이 고왔다. 유람선은 호수 안 레인보 브리지가 있는 모래섬까지 갔다가 그 섬을 반환점으로 돌아 출발한 선착장으로 귀환하는 5시간이 걸리는 코스다. 유람선은 쾌청한 날씨에 비단처럼 부드러운 물위를 흘러갔다. 광활한 사막에 이런 호수가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신의 편애다. 신도 때로는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레이크 파웰은 콜로라도 설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콜로라도강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만들어졌다. 호수는 강물처럼 흘렀다. 물 옆으로 높이 300피트가 넘는 모래산이 절벽을 이루며 솟아있다. 산 위에는 유럽의 고성(古城)을 꼭 닮은 거대한 성모습 조형물이 즐비했다. 유람선은 바람과 모래가 자연의 힘으로 만든 흰색과 적황색의 캐슬 락(Castle Rock) 사이를 헤엄치듯 비껴가며 인간을 감탄케 한다.

레이크 파웰은 수 백만년 전에는 바다였다고 한다. 지각변동으로 바닷물이 빠지고 육지가 되고, 사막이 되고, 호수가 되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한 힘이다.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다. 호수는 쓰레기 한 점 발견할 수 없었다. 호수 가에도 담배꽂초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 미국인의 공중도덕 수준과 당국의 자연보호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한국의 산하와 너무 비교되어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유람선은 2시간 30분을 항해, 레인보 브리지가 있는 섬 앞의 인공 선착장에 도착했다. 선착장에서 섬까지는 부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섬에 오른 나는 15분 정도 걸어 가서 마침내 지오그래픽 잡지에 서만 보고 감탄했던 레인보 브리지 앞에 섰다. 1900년 초, 탐험대에 의해 발견된 레인보 브리지는 높이 290피트(뉴욕 자유의 여신상 높이와 같다), 굵기 33피트, 길이 42피트의 아치형 다리로 하늘에 걸쳐 있었다. 나는 레인보 브리지 앞에서 호흡을 멈췄다. 바람과 모래가 자연의 신비로 만들어진 이 다리의 위용 앞에서 인간의 왜소함과 초라함을 절감했다.

레인보 브리지 왼쪽에는 도마뱀이 붙어 있다. 여기에는 소년과 도마뱀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레인보 브리지는 인디언의 성지로 지금도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리 밑으로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다. 거대한 다리 바로 앞에는 10평방미터 넓이의 평평한 돌이 깔려 있다. 아마 이 돌은 인디언이 제사 지낼 때 썼던 제단이 아니었을까 하고 혼자 생각해 본다. 돌 옆에는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물을 부으니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역광으로 반사된 레인보 브리지 위용에 나는 눈을 뜨지 못했다. 그것은 눈이 부서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물들에게 마음 속으로 외쳤다. 권력을 청송하고 힘없는 자를 무시하며, 부자에 아부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한국의 속물들은 꼭 이 다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나는 잠시나마 이 다리 앞에 서서 나의 속물 때를 씻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서울에 돌아가서 다시 속물로 환원할지라도 귀국 발걸음은 가벼울 것 같다. [필자]

古稀 회우 필두 風光 · 맛에 취했다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9월 16일 올해 고 희를 맞이한 회우 34명을 대상으로 특별 문화탐방행사를 가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이 주관한 이번 문화탐 방에 본회 고희 회우들이 초청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이날 분위기를 정 리한 것이다.(편집자註)

한국 천주교 전파의 진원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이번 문화 탐방행사에 동참한 인사는 대한언론인회 고희 회우를 포함 모두 100여명, 개인사정 으로 동참 못한 고희 회우들 중엔 자기대 신 다른 회우를 추천하는 미덕을 보였다. 차는 출발예정시간을 1분도 어기지 않은 오전 8시 정각에 프레스센터 앞을 떠났지 만 교통정체로 배론성지엔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가는 날이 장날 이라고 배론 성당엔 전국에서 운집한 수 천 명의 신도들이 한창 예배 중이었다. 한 국 천주교 전파의 진원지로 천주교사(天主敎史)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배론 성 지는 1801년 신유박해때 많은 천주교인이 배론 산골로 숨어들어 살았던 곳이다. 황 사영이 당시의 박해상황과 천주교 신도의 구원을 요청하는 백서를 숨어 집필한 토 굴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 기관인 성요셉신학교가 소재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다. 시간관계로 성지에 얹힌 유 래를 대충 대충 들을 수밖에 없는 아쉬움 을 뒤로하고 두 번째 방문지인 청풍문화 재단지로 향했다. 구름 한 점 없는 전형적 인 가을 날씨에다 차창 밖 빼어난 풍광이 말 그대로 제전은 淸風明月의 본향임을 실감케 한다. 청풍명월은 송나라시인 소동 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말이다. “이 세상의 만물 중에 주인이 없는 물건은 없어 털끝 만큼도 내 것으로 취(取)할 수 없지만 오 직 강상지청풍(江上之淸風)과 산간지명월 (山間之明月)은 무궁 무진 해 누가 취(취) 해도 금할 자가 없고 아무리 취해도 없어 지지 않는다.” 제전이 바로 그 청풍명월 의 대명사로 알려진지 오래다.

말 그대로 청풍명월에 감탄

제전은 예로부터 산과 물이 지천으로 깔려있는 천부의 고을로 소문나 있다. 근 세 조선조 초기 충정감사를 앞 다퉈 지 냈던 신 개(신립장군의 5대조부), 정인지 같은 역사의 인물은 관찰지 제전을 순방 하면서 남긴 글에서 “가는 곳마다 물이 넘 치고 청산의 위엄이 준엄한 곳”이라고 극 찬했다.

병자호란 때 봉화 문수산으로 피란 갔 던 홍우정(문절공 정양과 함께 태백 5현 중 한현)이란 유학자는 청풍의 한벽루에 올라 말하기를 “천하의 한 대장부가 청풍 의 한벽루에 올랐노라. 난간에 이르러 휘 파람을 부는데 가을달이 강을 비추는 오 경에 일러라”로 당시의 심정을 피력하 기 도 했다. 시인인 이백이 “맑은 바람과 밝 은 달은 한 톨의 돈이라도 써서 살 필요가 없다. (淸風明月 不用錢買)”고 한말은 지 금의 청풍과 제전을 두고 한 말인 듯싶다. 봄이면 강물을 따라 흐드러진 벚꽃이 수 십리 길에 만발하고 TV세트장과 금강산 을 닮았다는 기암괴석은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제전의 명산 금수산(錦繡山·해발

언론진흥재단 후원 제천 문화탐방

정운종 · 본회 상임이사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현장 정문에서.



송어회 정식으로 점심을 들고.

1,015.8m)의 원래 이름은 백운산이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단양 군수를 지낸 퇴계 (退溪)이환(李滉)이 단풍 든 이 산의 모 습을 보고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답다”며 감탄, 산 이름을 금수산으로 바꾸 었다고 한다. 중부고속도로 남제천 인터체 인지를 지나 청풍호반 초입에 이르면 오 른쪽에 신기한 바위산 금월봉(금성면 월 굴리 소재)이 반긴다. 금월봉은 평범한 야 산이었는데 공사 중 바위를 발견, 파다보 니 이렇게 멋진 바위산이 나왔다고 한다. 바라볼수록 신령스럽다. 근처엔 태조왕건, 명성왕후, 이제마, 장길산, 주몽 등 영화 촬영소가 있지만 시간관계로 둘러보지 못 해 아쉬웠다. 청풍대교에서 충주 쪽 좌측 엔 옥순대교가 옥순봉 가까이 잠자듯 말 이 없는 퇴계 선생의 애기(愛妓) 두향이 남기고간 애뜻한 사랑이야기를 간직한 채 반기듯 손짓한다.

오찬장 입맛 돋운 송어회 정식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던가. 청풍문화재 단지 관람은 점심을 들고 난 뒤로 미루었 다. 소문만 들던 황금가든. 동산(해발 896m·자연석으로 잘생긴 남근석이 서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다)을 뒤 로한 계곡에 자리한 황금가든은 송어회 정식으로 소문난 식당이다. 잘게 썬 청정 야채에다 참기름, 볶은 콩가루와 송어회를 섞어 비벼 먹는 맛도 일미 중 일미지만 개 운한 매운탕에 이고장 특산물 ‘시원한’ 소 주 맛도 일품이다. 흥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이 오찬 자리에서 한국언론진흥재 단이 고희 회우를 특별히 초청해 준 후의 에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시간에 쫓겨 청풍문화재단지는 돌레 길을 한 바퀴 돌며 해설을 듣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 다. 청풍문화재단지는 예로부터 청풍명월 의 고장이라 불린 제천군 청풍면 물태리

에 있다. 주변에 흐르는 청풍호가 넉넉한 운치를 더해준다. 청풍은 자연경관이 수려 하고 명성왕후의 관향이라 하여 도호부로 승격되어 많은 문화유산이 간직된 유서 깊은 곳이다. 보물 제528호인 한벽루와 보 물 제546호인 석조여래입상을 비롯해 팔 영루, 금병헌, 금남루, 향교와 옛 고가들이 나란히 모여 있다. 특히 청풍호를 그윽하 게 내려다보고 선 한벽루는 예로부터 시 인목객들이 다투어 올라 청풍을 예찬하던 아름다운 누각이다. 이날따라 청풍호반은 유난히 푸르렀다. 수려한 산과 호수가 경 이롭게 어우러 진 청풍호반은 문자 그대 로 내륙의 바다, 때맞춰 우리일행을 환영 하듯 동양최대 수경분수가 하늘을 찌른다. 안내를 맡은 해설가의 말로는 이날부터 열린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에 맞춰 호수에 물을 가득 채운 탕으로 이렇게 만 수(滿水)를 이루었다고 한다. 제천이 낳은 천재, 한국 언론계의 거목 고 천관우 선생 의 생가가 청풍호에 잠겨 버렸다는 사실 도 빼놓지 않고 전해 준다.

눈물 쏟게 한 ‘울고 넘는 박달재’

청풍호반을 뒤로하고 한 40분쯤 달리니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현장, ‘한방의 과학 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해 한의학의 우 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인류의 염 원인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한방엑스포는 침, 뜸, 경혈 경락 등 전통기법부터 최신 한방진단기 등 첨단 한의학 메디컬 시스템까지 체험 형 전시장으로 꾸며져 현장에서 한방진단 도 받을 수 있다. ‘약초탐구관’에서는 400여종의 국내외 약초를 볼 수 있고 국 내에선 처음으로 중국과 동남아에서 건너 온 40여종의 화귀 약초를 원형 그대로 만 나볼 수 있어 신기하기만 했다. 한방엑스 포 현장에서 지근거리엔 삼한사대에 축조

된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저수지 의림지가 있다. 축조된 명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구전 에는 신라 진흥왕 (540~575)때 악성 우 룩이 용두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을 막 아 독을 만든 것이 이 못의 시초라고 한 다. 의림지의 영험 때문인가. 제천엔 의로 운 유림들이 많이 나왔다. 을미년 명성황 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선포되자 의암 유인석(1842-1915)은 이곳 제천에서 수 백 명의 유생들을 집결시켜 격문을 발하 고 의병을 조직한다. 그는 구한말에서 일 제 강점기에 이르는 의병역사의 알파요 오메가였다. 의암은 특히 화서 이항로의 수제자 유종교의 뒤를 이어 위정척사의 영수로 추앙 받고 있다. 제천시 봉양읍 공 전리 마을에 조성된 지암영당엔 의병장 유인석을 비롯한 전국 의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송의사와 의병기념탑, 의병전시관 등 이 들어서 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역 시 ‘울고 넘는 박달재’, 1948년 발표된 박 재홍의 동명 트로트를 메인 테마곡으로 하는 악극이다. 박진사택 셋째 아들 준호 와 종으로 온 금봉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 기가 이어진다. 박인환, 양재성, 김진태, 최주봉 등 극단 가요 배우들과 실력과 뮤지컬배우 강효성이 ‘금봉’으로 출연하고 있다. 무용수들의 멋들어진 군무와 12인 조 악단의 라이브 연주로 빛나는 악극 ‘울 고 넘는 박달재’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가슴 벅찬 감동의 무대였다. 순발력 있게 바뀌는 장막도 지루하지 않았고 기 구하게도 겸사인 아들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고 교수형에 처해지는 금봉의 최후는 해방 전 후 한창 인기 절정이었던 흑백영 화 ‘검사와 여선생’을 방불케 한다. 여기 저기에서 손수건을 꺼내든 몇 몇 회우들 이 눈물을 펄펄 쏟든 모습이 눈에 선하다.

박달재 도토리묵밥 별미 중 별미

눈물 짙 ‘울고 넘는 박달재’ 탓인가. 귀 로에 박달재를 넘는 감회가 남달랐다. 박 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 소리를 귀가 아프도록 들으면서 소문난 도토리 묵밥에다 동동주 한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떠올리며 먹는 메밀전 맛도 이 날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월악산 국립공원과 내륙의 바다 청풍호반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중부 내륙의 핵심도시 제천은 이제 그 옛날 어 깨들이 설치던 그런 제천이 아니다. 황기, 당귀, 오미자, 산청목, 햇개 열매, 결명자, 하수오, 산도라지, 인삼, 자연생 약초가 풍 성한 세계적 한방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제천, 이래서 어느 중견 코미디언은 ‘인 명재천(人命在天)’ 시대는 가고 ‘인명제 천(人命堤川)’ 시대가 도래 했으며 제천 에 가면 모든 병이 한방에 낫는다고 너스 레를 떨었는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누구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 해지는 고향, 그 고향을 너무 과찬 하지 않았나 싶어 낮이 뜨겁다. 끝으로 상냥한 미소로 자상하게 해설해주 제천시청 문화 관광과 김연숙 여사를 비롯한 해설사와 시종일관 빈틈없이 진행을 맡아 수고해준 언론재단 김태우 과장과 김화정 님 그리 고 이번 행사를 집중 취재 보도해 준 시사 뉴스인뉴스 이학성 편집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K]

치매예방 오는것이 보이면 막을 수 있나 (上)

영국의 저널리스트 아담 위셔트(Adam Wishart)가 쓴 '세 사람에 한사람(ONE IN THREE)'이란 책의 일역본(日譯本) 표지에는 '암의 최대의 지원자는 시간'이라고 적혀있다. 장수시대에 겪어야 하는 업보가 암이라는 뜻이었지만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암이 죽음의 집달리가 아니라 공생자(共生者)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보면 암보다 치매가 더 끔찍하다. 어떤 시간의 선을 지나면, 모든 노인 모든 장수자가 걸리는게 아니라 아직은 선택적으로 걸리는 것이지만 나이를 더해가는 가령(加齡)은 이환율을 넓혀가는 필요조건이 되고있다. 오래 살수록 끔찍한 조우(遭遇)는 있다는 뜻이다.

과거를 망각하는 것은 때로 약이 될 수 있지만 현재를 판별할 수 없는 끔찍한 뇌세계는 그야말로 삶의 막장에서 겪는 암흑세계였다.

치매라는 영어단어 dementia는 정신의 부재(不在)를 뜻한다. 정신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노쇠한 육신만 남는다면 그것이 암보다 덜 무섭다고 할 것인가?

1972년에 출간된 일본작가 아리요시 사와코(有吉 佐和子)의 '황홀한 사람'을 읽은적이 있다. 황홀한 사람은 치매걸린 노인을 말한다. '황홀하여 사람을 못 알아본다'라는 옛날 일본말에서 따온 소설제목이다. 함께 사는 며느리 더러 '누구시죠'하고, 별별 괴이한 짓을 벌이는 '황홀한 사람'은 일본열도에 충격파를 던져 치매가 처음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단서가 된다.

치매에는 뇌혈관성치매와 신경세포 탈락과 병변(病變)으로 일어나는 알츠하이머가 있다. 뇌혈관성치매는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심장병 등이 유인(誘因)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혈관성 치매와는 전혀 다르다. 한때 알루미늄성분 축적설이 나돌았으나 요즘은 신경세

포를 죽게하는 '아미로이트 베타 단백질' 원인설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알츠하이머의 병인(病因)은 복합적이라서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 주인(主因)으로 꼽히는 '아미로이트 베타 단백질'에 대해선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게 좋겠다. 뇌에 관한 책은 눈에 띄는대로 사서 읽었지만 과학자가 아닌, 독서인에 불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들어 있으나 읽을수록 멍멍하다.

치매에 관한 어두운 정보를 펼쳐 놓기 전에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는지.

시스터 마리아의 이적(異蹟)

1990년 미국의 캔터키대학 의학부의 예방의학연구그룹은 노트르담 수녀원(미

자보다 약간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스터 마리아의 뇌는 870g에 불과했다. 뇌위축은 알츠하이머의 특징적인 증상이다. 게다가 그녀의 뇌에는 신경세포의 탈락이 두드러져 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인 노인반(老人斑·검버섯)과 신경원선유(神經原線維)변화가 여러개 드러나 있었다. 고전적인 병리진단으로는 갈데 없는 알츠하이머 그것이었다. 뇌는 분명히 알츠하이머의 징후를 띠고 있는데도 총명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추적조사팀은 시스터 마리아의 생전의 라이프스타일과 생활습관에 주목했다.

시스터 마리아는 189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났다. 11명이나 되는 형제자매의 맏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학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자 곧장 수도원에서 공부를 계속했고 19세부터 시골 중학교에서 수학교사가 되었다. 통신교육으로 고등학교졸업 자격증을 땀을 때 성적은 전과목 우(優)였다. 84세에 교직에서 은퇴한 뒤에도 수도원 안에서 봉사자로서 지적인 활동을 계속했으며 그 나이에도 신문의 전지면을 통독하며 세상돌아가는 움직임에도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다.

은퇴에 대해선 "내가 은퇴하는 것은 밤에 잠잘 때 그 때 뿐이라"고 했다.

시스터 마리아 사후의 뇌 해부검사에서 분명히 알츠하이머병이었는데도 생전에 그렇게도 총명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은 분명하다. 생애를 통틀어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고 즐기게 공부하며 지적활동을 계속한 것 외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알츠하이머 병변이 일어나 있는데도 치매 증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시스터 마리아의 사례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치매예방과 극복의 키워드는 '머리를 계속 쓰는 일과 마음의 평화'일 수 있다. [4]

마음의평화 지적활동이 예방·극복의 길

과한 내가 아는척하는 것은 삼가는데 나

뇌에 관한 일본서적 20여권을 읽었다. 대중적인 것에서 학술적인 것에 이르고 있으나 초 정밀기관인 뇌속은 복잡미묘해서 내가 아는것은 초입에 불과하다. 1987년 '황체의 다양성생성의 유전학적 원리의 해명'으로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한 일본 과학자 도네가와 스스무(利根川 進)의 '나의 뇌과학 강의', 자유키고가의 신분으로 록히드모를 사건을 파헤쳐 다나카수상을 쓰러뜨린 다치바나 다카시(立花 隆)의 '뇌와 빅뱅', '뇌를 단련하다(동경대학 강의 「인간의 현재」 12講)', 도네가와 다치바나 대담집 '정신과 물질' 등이 나의 독서력에

국)에 거주하는 77세부터 107세까지의 수녀 678명을 대상으로 나이가 더해감과 치매에 관한 여러가지 추적조사를 한 바있다. 연구에 협조한 수녀들 속에 시스터 마리아가 들어있다. 101세로 선종(善終)한 시스터 마리아의 사례는 라이프 스타일과 질병의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스터 마리아는 100세를 넘기고서도 총명한 생활을 유지했으며 죽기 직전까지 치매로 보이는 증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사후 해부를 한 결과 뇌의 현미경적인 병리소견(病理所見)이 밝혀지자 추적조사팀은 거기에서 하나의 이적(異蹟)을 보았다. 보통 어른(남자)의 뇌무게는 1200g에서 1400g이다. 여자는 남

김성환 회우 개인전 '그시절 그모습'

'그 시절 그 모습'이란 주제의 김성환 화백의 개인 전시회가 9월29일 서울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렸다. 10월 5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도 찾아보기 어려운 예전의 서울과 시골 풍속화 백여점이 선보였다.

다듬이질, 학생복 차림의 신문배달 소년, 전차길, 판자촌, 지게, 가회동 기와집 골목, 눈 오는 저녁, 문밖에서 남편 기다림, 초가집 등불, 농가 풍경, 냄비주이, 키질, 빨래통 이고 빨래터 가는 아낙네, 농가 우물가, 소 달구지, 별 총총한 밤, 장보기, 통근 버스와 여차장, 창경원과 전차, 눈 내리는 시골 초가집 등등...1960, 70년대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았다.

"풍경화나 미인도,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서민들의 삶이 진짜 세상과 삶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림을 통해 그들의 일상을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전시회를 가진 김 화백의 말이다. 각종 사진 자료를 토대로 그린 그의 작품 속에는 50여년 전 서울청계천, 동대문, 돈암동, 농촌의 초가집, 공동 우물, 재래 시장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서민들의 삶은 팍팍했지만 그가 오일 파스텔로 그린 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정감있고 따스하다. "당시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했지요. 하지만 저는 민중화가처럼 거칠고 격하게 그들을 표현하기는 싫었어요. 오히려 지치고 힘들더라도 각자 자기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전시회의 또 다른 주제는 '고향'이다. 북한 개성 출신인 그에게 고향은 반세기 넘게 이어온 그리움의 대상이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언젠가는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소소한 농촌 풍경을 여럿 그렸습니다." 시사 만화로 촌철살인의 미(美)를 보여줬던 김 화백은 "이제 감동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감동이 없으면 예술이 아니에요. 제 그림을 보고 우는 분들도 있는데 고향 생각도, 옛 일 생각도 나서겠지요. 좀 더 울림이 큰 작품을 그리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김 화백은 1955~80년 동아일보에서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을 그렸고



가회동 한옥마을.

이후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서 연재하다 2000년 9월 은퇴했다. 모두 1만4139회로 국내 최장수 시사만화로 기록돼 있다.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중부대초빙교수)

‘韓國言論人物史話’ 출간 한다

大韓言論人會

50여명 수록... 11월말 출판 예정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는 올해 안에 ‘한국언론인물사화’를 속간한다. ‘한국언론인물사화’는 언론계에서 활약하다 작고하신 분 가운데서 언론발전에 크게 기여하신분과 많은 일화를 남긴 언론인을 골라 책으로 엮어 후세에 귀감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2년 12월 8·15 전편 상(제1권) 하(제2권)를 펴낸 것을 시작으로 1993년 8·

15 후편 상(제3권) 하(제4권)와 2001년 12월 5권 6권을 각각 발행 했다. 이번에 발간하려는 ‘한국언론인물사화’는 통권 7권 째이며 인물선정은 과거의 선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고 1차로 대상 인물 50명을 선정, 집필 의뢰중이다. 필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한국언론인물사화’ 수록 인물 선정기

준과 간행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인물선정기준 ◆

- (1) 부장급 이상의 편집 보도직 경력자로서 특별한 일화를 남긴 언론인
- (2) 언론사를 창업한 발행인 사장 회장 또는 사주가 아닌 발행인 중 현저한 일화를 남긴 언론인
- (3) 비상임 논설위원은 언론발전에 기여한 경력자
- (4) 방송사 아나운서와 PD는 보도부문 프로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간행위원회 ◆

고 문 : 신우식 (본회 고문) 발행

인 : 홍원기(본회 회장)

간행위원장 : 김성배 (본회 부회장)

간행위원 : 김은구(본회 상담역) 윤익한() 한기호() 김호기(본회 감사) 송효빈() 이병대(본회 부회장) 이태영() 윤기병() 정기정() 정진석(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김해도(본회 편집고문) 성낙오(본회 편집위원장) 문명호(본회 논설고문) 이형균 (본회 논설위원장) 주간 : 정운중 (본회 상임이사)

10월 3일, 음력 8월 26일은 국문학사를 빛낸 불후의 걸작 ‘홍길동전’의 작가 고산(高山) 허균(許筠)의 392회 기일(忌日)이다. 허균은 선조 2년(1569)에 태어나 광해군 10년(1618) 이날 역모 혐의로 능지처참을 당했다. 필자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율곡(栗谷) 이이(李珣)와 더불어 조선조 3대 천재로 꼽는 허균은 선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를 공경한다는 탄핵을 받아 간신히 얻은 벼슬인 삼척부사 자리에서 13일 만에 파면당하기도 했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洪吉童)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습에 용감히 도전한 패남아요 서민대중의 영웅이었다. 홍길동을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재창조한 허균은 조선 왕조시대를 반향으로 살다간 풍운아요, 풍류의 맛을 깊이 깨달았던 풍류명인이기도 했다. 왕조사의 역적으로 몰려 역사의 무덤에 깊이 묻혀버렸던 이단자 허균이 시대를 앞서간 선구적 혁명가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홍길동전’ 덕분이었다.

‘홍길동전’은 몇 가지 기록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최초의 한글소설이다. 둘째, 조선조의 병폐의 하나였던 서얼문제를 소재로 삼은 최초의 사회소설이다. 셋째, 주인공이 의적이란 점에서 반골소설이다. 넷째, 홍길동이 ‘조선 왕조실록’에도 나오는 실존인물이라는 점에서 실명소설이다. 다섯째, 주인공을 전설적 서민의 영웅으로 만든 영웅소설이다. 여섯째, 홍길동이 도술을 부리는 도가소설이기도 하다. 소설 첫머리는 길동이 서자로 태어나게 된 사정을 그려 보인다. 흥 판서가 하루는 낮잠을 자다가 용꿈을 꾸고 귀한 자식을 낳을 태몽이라 여겨 내실에 들어가 부인과 ‘일’을 치르려 하지만 부인은 체통 없는 짓이라며 거절한다. 이에 화가 난 흥 판서가 방년 18세인 몸종 춘섭과 관계를 가져 마침내 길동을 낳으니 아이의 기골이 비범해서 영웅호걸의 기상이었다. 길동이 어느덧 여덟 살이 되었는데 총명이 뛰어나 하나를 들으면 백을 통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천한 첩의 자식이라 열 살이 넘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종들도 천대하는 것이 뻘속깊이 사무치는 한이 되었다. 결국 부모를 하직하고 집을 떠난 길동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도둑의 소굴로 찾아들어 두목이 된다. 수천 명 도둑의 우두머리가 된 그는 무리를 활빈당이라 하고

온갖 지모와 도술과 둔갑술을 써서 합천 해인사와 함경도 감영을 터는 것을 시작으로 조선 팔도를 휩쓸며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의롭지 못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등 의적활동을 벌인다.

도술을 부리며 의적활동을 하던 홍길동은 조선을 떠나 남해 울도국(聿島國)으로 들어가 5만 군사로 그곳을 점령하고 왕위에 올랐다. 그렇게 이상국 울도국의 임금이 된 홍길동은 3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홀연히 병을 얻어 70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홍길동전’의 줄거리이다. 최근 일부 학자의 연구 결과 울도국이 바로 오키나와라고 한다. 오키나와는 고려 때 몽골에 항쟁하던 삼별초(三別抄)의 망명지로도 알려졌고, 아직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언어와 풍습이 남아 있다.

허균이 과거에 급제, 벼슬길에 나아간 것은 선조 27년(1594). 그러나 재주가 뛰어나고 자존심이 강하니 소인배의 시기와 모략이 끊임없었다. 그는 현실과 타협하기보다 불화를 택했다. 파면과 사직을 거듭하다가 벼슬살이 8년 만에 정3품 당상관인 사복시정에 올랐으나 또다시 파직당해 산수 간을 넘나들며 풍류를 즐겼다.

허균은 포부는 컸으나 뜻대로 펼칠 수 없었고, 재주는 인정하나 사람됨을 알아주지 않는 관료사회의 편협함에 염증을 느꼈다. 자신이 세상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다고 여긴 그는 강호를 떠돌면서 재주는 있으나 불우한 서얼 등 처지가 불우한 벗들과 즐겨 사귀었다. 조선왕조시대에는 아비가 양반이라도 첩의 소생이면 벼슬길을 막는 서얼금고제가 있었다. 나라는 비좁고 인구는 많은데 아무리 경천위지(經天緯地)의 재주와 구세제민(救世濟民)의 포부가 있어도 첩의 자식은 홍길동처럼 아비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했다. 허균은 ‘유재론(遺才

許筠과 ‘홍길동전’

溫故知新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論’을 통해 적자와 서자 차별대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인도적 실리적 차원에서 서얼금고제도의 철폐를 이렇게 주장했다.

- 사람의 재주와 능력은 하늘이 준 것이므로 귀한 집 자식이라고 많이 주는 것도, 천한 집 자식이라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다. -

그는 또 ‘호민론(豪民論)’에서 이렇게 외

쳤다.

-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백성이다. 정치가들은 백성을 몰이나 불, 범처럼 두려워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학대하고 굶어가고 부려먹기만 한다! -

선조 36년(1604)에 황해도 수안군수로 나갔다가 1년 만에 쫓겨난 그는 3년 뒤에 부임한 삼척부사 자리에선 겨우 13일 만에 쫓겨났다. 재주가 뛰어난 만큼 시기도 많이 당했고, 남의 시선을 꺼리지 않고 소신껏 행동했으므로 순탄한 벼슬길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다. 세상과의 불화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찮은 일들을 가지고 소인배가 모략을 일삼는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따르라. 나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살겠다.” 그는 유, 불, 선 삼교에 통달했지만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다. “성육과 식육은 하늘이 준 인간의 본성이므로 유교나 불교의 계율로도 속박할 수 없다. 나는 성인(聖人)의 가르침보다도 하늘을 따르겠다.”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새 정권에 끈이 없는 허균은 다시 벼슬이 떨어졌다. 또 2년 뒤에는 과거 시험관으로 복직했지만 조카와 제자들을 부정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그 이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라도 함열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귀양이 풀리자 그는 부안으로 들어가 기생 매창(梅窓), 중해안(中海眼) 등과 더불어 변산의 채석강 적벽강 내소사 개암사 직소폭포 등 명승절경들을 찾아다니며 풍류를 즐겼다.

그가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선계폭포 아래 정사암에 은거하며 ‘홍길동전’을 지은 것도 그 무렵, 1612년 12월부터로 추정된다.

허균은 당대에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는 1500수나 지은 반면, 소설은 6편에 불과하다. 허균은 소설은 과담이라고 천시하고 공맹(孔孟)의 가르침만이 참된 도리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소설을 즐겨 썼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언론, 상놈의 글자라고 천대받던 서민대중의 글자 한글로 소설을 쓴 선구자였다.

‘홍길동전’ 이야 말로 서민대중의 힘으로 부패한 정치,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고 이상국을 세우려는 허균의 원대한 의지가 집약된 걸작이었다. 현세의 홍길동, 현실의 활빈당 행수였던 허균은 원민들을 모아 자신의 활빈도를 만들려다가 귀양살이를 했고, 귀양이 풀리자 적극적으로 현실과 부닥쳐 타협 아닌 적극적인 대결을 벌이려고 했다. 그가 당시 실권자였던 대북(大北)의 영수 이이첨(李爾瞻)의 힘을 빌려 광해군의 조정에 들어가 좌승지 형조판서를 거쳐 정2품 좌참찬까지 오른 것은 오로지 광해군의 그늘에 들어가 이이첨을 방패삼아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광해군 9년(1617) 허균의 역모를 고발하는 비밀상소가 연거푸 세 차례나 올라갔다. 이는 이이첨이 허균의 세력이 커져 자신의 강력한 정적이 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리려는 음모였다는 설도 있다. 허균은 그렇게 하여 의금부 옥에 갇혔고, 이이첨이 허균을 빨리 처형해야 한다고 광해군에게 압력을 넣음에 따라 그는 광해군 10년 8월 26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능지처참을 당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해 그의 나이 50세였다.

그러나 허균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 왕조시대가 끝나고 백성이 주인이 된 새 세상이 되자 역사의 무덤에 깊이 잠들어 있던 풍운아 허균, 미완(未完)의 혁명가 허균은 서민의 영웅 홍길동과 더불어 국문학사의 선구자로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의 묘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맏리 수정산 기슭 양천 허씨 묘역 부친과 형들의 묘 사이에 있는데 시신이 없는 빈 봉분뿐이니, 이는 그가 왕조사의 역적으로 능지처참 당했기 때문이다. [4]

언론사 社友會 소식

서울신문

서우회 문고 개설

서울신문사우회(회장 신우식·본회 고문)는 모사(母社)인 서울신문의 특별 배려로 프레스센터 10층에 마련된 사무실에 서우회 문고를 개설했다.

이 문고는 이미 사우들의 저서 200여권을 확보했으며 희귀도서도 적지 않다.

KBS

방송인생 회고, 방송일화 출간 계획

KBS사우회(회장 김수웅·본회 회우)는 회원들의 방송일화가 담긴 책 '다시보는 방송노트'(가제)를 출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KBS사우회가 출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평생을 몸담아온 회우들이 방송 인생을 회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아 방송야사로 같이 남겨두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친목 활동 일정 확정

KBS사우회는 각 친목활동위원회 하반기 일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음악= 8월 17일 KBS신관 어린이 합창단실, 사진= 9월 7일, 문화유적 = 10월13일, 낚시= 10월 19일, 등산= 10월 26일, 바둑= 11월 4일

한국일보

‘韓友會報’ 제2호 발간

한국일보 사우회(회장 김충한·본회 회우)는 지난 9월 15일자로 사우회보 ‘韓友會報’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4면 컬러판으로 제작된 이번 사우회보는 원로회우들의 ‘과거사 증언’ 좌담회 기사와 퇴직 사우들의 근황이 실려 있다.

한국일보 사우회는 또 오는 12월 7일 하오 5시 중구 남대문로 2가 한국일보사 건물 26층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일본 교토에 고 한운사 선생 추모홀

한국일보사우회는 초창기 한국일보 문화부장을 지낸 고 한운사 선생 추모홀을

일본 교토에 마련했다. 재일동포 노인복지 시설 ‘고향의 집 교토’ (이사장 윤기)는 고인의 1주기를 맞아 9월 1일 문화홀 이름을 ‘운사 홀’로 명명 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한국일보 사우회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일보사가 후원했다. 이날 사우회 측에서는 김충한 회장을 비롯해 김해도 본회 이사와 이억순 회우, 정 훈 문창재씨 등이 참석했다. ‘고향의 집 교토’는 재일동포 고령자 160여명이 모여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언론가 소식

한국언론진흥재단 전시회 열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프레스센터 1층 전시장에서 ‘신문으로 할수있는 모든 것’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는 신문의 가치를 되새기고 보다 나은 활용 방법을 찾기위해 지난 4월부터 4개월여 동안 진행해온 신문활동 공모전, 신문 논술대회, 저작권침해예방 공모전 수상작 80여점이 선보였다.

교사 997명 언론재단에서 연수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여름방학 동안 전

국 초 중 고 교사 직무 연수를 실시했다. NE미디어교육, 영상제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된 이번 직무연수에는 전국적으로 총 19회 997명의 초 중 고 교사가 참가했다.

경향신문 최초 여성사회부장 탄생

경향신문창간 이래 최초로 여성 사회부장(김민아 부장)이 탄생했다. 경향신문 역사상 여성이 사회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아 부장은 1990년 12월 경향에 입사, 최근까지 특집기획부장으로 일했다.

대한언론인회 가을철 문화탐방

10월 25일 여주 신록사 일원

가을철 문화탐방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2010년 10월 25일 오전 8시(시간 엄수)

집합장소 : 프레스센터 정문 관광

버스 대기

행선지 및 일정 : 여주신록사 -영릉등 관람후 프레스센터 20층 금년도 대한언론상 시상식 참가

참가신청 (선착 순 80명) 10월 15~16일 양일에 한해 접수함

☎ 732-4797/8 팩스 730-1270

e메일 kjc1405@hanmail.net

대한언론인회 기우회 바둑대회

11월 8일 무교동 서울기원

대한언론인회 기우회 첫 바둑대회가 오는 11월 8일(월) 오후 1시 무교동 서울기원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A조(1~3급), B조(4~6급), C조(7급이하)로 나누어 치러지며, 대국방식은 당일 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회 후 송년 저녁모임을 겸하기로 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를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본회 사무실

(☎02-732-4797~8) 또는 김윤석 기우회 총무(016-288-0674)

한편 기우회는 지난 9월 3일(금)오후 종로2가 세계기원에서 12명의 회원들이 모여 수담을 나누고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냈다.

손연순 편집국장은 일제시대 ‘후잔 닛뽀(부산일보)’의 명기자였다.

그의 필명은 멀리 東京의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신문에까지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일인기자들은 부산에는 카쓰(勝)가 있다고 그의 기사에 찬사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勝’은 그의 필명이었다.

당시 孫國장이 ‘산바시 부두’ 출입을 하고 있을때의 일화.

마쓰오카(松岡)외상이 일·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기위해 모스크바로 가는 도중 關釜연락선에서 내려 부산역으로 이동해 급행열차를 타고 있을때 일등석에서 10여분간의 단독기자회견을 했다.

孫기자는 회견기사 끝머리에 ‘モスコバまで 續くであろう ふたすじのレールは 雨にぬれて 異様に ひかっていた’.

나는 온종일 고심했으나 이렇게 밖에 이역할 수 없어 이미 고인이 되신 孫國장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모스크바까지 이어질 두가닥 철로는 때마침 뿌린 비에 젖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일화.

친일의 거두 朴春琴 참의원과 부산부두 關釜 연락선안에서 10여분의 기자회견

견을 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황급히 연락선에서 내려려하자 배는 이미 뺏고 동을 울리며 부두를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했다. 당황한 孫기자가 뛰어 내려려하자 선원들이 붙잡고 말했다.

이를 어찌자.

孫기자는 할수없이 차참의원이 있는 일등실로 가서 시모노세키까지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선상에서 일인편집국장 앞으로 전문을 보냈다.

“オリオクレ カツ? 내리는 시간을 놓쳐 내리지 못함, 카쓰”

시모노세키에서 내려 차참의원을 전송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名記者 손연순 편집국장



정 준 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전쟁 종군기자

하는 플랫폼에서 차참의원은 흰봉투 하나를 건넸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연락선 안에서 열어 보니 일화 200엔이 들어 있었다.

당시 고등문관 월봉이 150엔쯤 됐으니 꽤 큰 돈이었다. 신문사 편집국으로 들어서자, 일인 편집국장은 큰소리로 “기미, 노리오쿠레는 간혹 있는 일이지만 오리오쿠레는 난생 처음 일세”

이 말에 편집국은 온통 웃음 바다가 됐다. 일인 동료들은 차참의원과 하룻밤을 지냈으니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고들 했다.

그렇지 않아도 뒤풀이를 할 참이었다. 그날 밤 부산 유명 술집을 1차, 2차, 3차, 4차, 밤늦도록 퍼마시며 모두가 곤드레가 됐다.

孫國장은 과묵했다.

나는 견습때부터 그의 지시로 특별취재를 거듭했다.

조사부에는 한달에 한두번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신문이 탁송돼왔다. 孫國장과는 자주 이곳에서 마주쳤다. 어느해인가 일본의 ‘신문의 날’에 아사히 신문은 특집기사로 두면을 온통 메웠다.

그 한가운데 큼직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書かれる 身にも なって かんがえて みる? 펜으로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보라’

이 짧막한 제목은 내 기자생활에서 좌우명이 됐다. 일본에서 1단짜리 기사로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한 20년전쯤인가 孫國장은 취침중에 숨을 거두었다. 새벽에 가족들이 일어나서야 알게됐다.

종합병원 영안실로 문상을 다녀왔다. 출상날 나는 짙막한 추도사를 읽었다. 읽는 도중 울컥하여 잠깐 말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향신문 기자 20여명이 눈에 띄었다.

추도사

단아한 선비 언론인 김성한 선생 영전에

내가 김성한 선생을 처음 본 것은 1959년 초 동아일보사 수습기자 시험을 칠 때였다. 그는 1차시험 합격자들에게 구두시험을 실시한 면접위원의 한 사람이었다. 입사 후에 알았지만 김성한 선생은 당시 편집국장을 잠정적으로 겸하고 있던 고재욱 주필 아래서 백광하 선생과 함께 편집국 부국장을 맡고 있었다. 고재욱 주필은 임원실이 그의 정위치였고 일이 있을 때만 편집국에 들르거나 편집국 간부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두 부국장이 사실상 편집국의 책임자 역할을 했다. 예리한 정치단편자인 '단상단하'로 이름을 날리던 백 부국장도 굉장한 영향력을 지닌 언론인이었지만, 김 부국장은 내가 대학시절에 읽고 감동한 화제의 단편 소설인 '바비도'의 작가여서 문학에 취미를 가진 애송이 기자였던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본의 최고명문인 도쿄대 법문학부 출신인 그는 외모며 말씨가 단아한 선비형 언론인이었다. 그는 '바비도'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인 데다가, 동아일보에 들어오기 전 당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월간종합지 '사상계'의 주간을 지낸 경력 탓으로 내게는 아주 지성적인 저널리스트로 보였다. 1950년대 말의 시대상은 권력의 부패와 사회적 혼란이 판을 쳐 진리와 정의가 목마른 상황이었다. 그가 쓴 초기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이 같은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지식인들이 많았다.

김성한 선생은 동아일보에서 편집국장, 출판주간, 논설주간, 편집인을 두루 거치고 안보통일문제조사연구소장직을 끝으로 1980년대 초에 퇴사할 때까지 내가 20여년 간 상사로 모신 대선배지만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일한 것은 그의 논설주간 시절이다. 그는 유신말기-신군부 초기 시절 약 3년간 논설주간이었고, 나는 거의 같은 기간 그 밑에서 논설위원을 지냈다. 나의 담당이 정치분야였기 때문에 나는 사실로 인해 유신정권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다. 정부당국은 어떤 문제는 사실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해오다가 어떤 문제는 사실로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해왔다. 예컨대, 유신정권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외국신문과의 회견을 트집 잡아 국회에서 제명했는데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등원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큰 딜레마에 빠졌다.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당국자들은 내게 야당의원 등원을 촉구하는 사실을 써달라고 끈질기게 압력을 가해 왔다. 그 속셈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나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그들이 같은 요구를 논설주간에게도 했



고 김성한 선생

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히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그를 괴롭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김성한 선생은 일체 이를 내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정치적 성향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중요한 정치사실을 쓸 때도 일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지 않고, "소신대로 쓰라"고만 했다.

권력자들이 가해온 압력 가운데 가장 몸살을 앓은 일단 신문지면에 나간 사실의 특정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압력에 견디는 최선의 방법은 문제될 만한 사실이 나간 후 몇 시간 동안 논설주간과 담당 논설위원이 자리를 뜨는 것이다. 그 때는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어서 두 사람이 회사 밖으로 나가 버리면 연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다른 사람이 사설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김성한 주간과 나는 같이 식사를 하고 그의 차로 북악산에 가서 바람을 쏘이다가 귀사한 일도 있다.

나는 그와 비교적 자주 정치문제를 토의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비명에 간 직후 이른바 '서울의 봄'이 와서 잠깐 동안 세 김씨가 집권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였다. 그는 나를 자기 방으로 불러 시국전망을 물었다. 나는 이런 경우가 되면 누가 유리하고, 저런 경우가 되면 누가 유리하다는 식의 정국분석을 했더니 그는 한참 듣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닐걸요, 앞으로 군부가 권력을 잡을 겁니다...". 얼마 후 그의 진단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역사소설가인 그의 남다른 안목에 경탄했다.

그의 역사소설은 '이성계', '요하', '왕건', '임진왜란' 등 인간과 권력의 세계를 다룬 것이 많았다. 대하소설 '임진왜란'의 신문연재를 마치고 쓴 글을 보면 그는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무능한 통치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준열하게 고발하고 있다. 김성한 선생은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히 저항적인 언론인이러든가, 울골은 언론인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차원 높은 역사적 안목과 통찰력을 지닌 선비적 언론인이었다고 할 것이다. 나는 그런 대선배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 삼가 김성한 선생의 명복을 빈다.

남시욱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상무이사
- 세종대 석좌교수

故 김성진 전 회우 1주기 추모 모임



고 김성진 회우(전 문공부장관·연합통신 사장)의 1주기인 지난 9월 17일 본회의 신동호, 이덕주, 박용근, 조창화 회우등이 양재동의 한 식당에 모여 고인을 추모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고인의 동생인 김현진씨와 생전에 절친하게 지냈던 김상철 전 감사원 사무총장, 안휘준 박사, 이종호 중외제약회

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위) 한편 연합통신의 후배들인 김영일, 현소환회우 등은 비록 고인이 유언에서 비석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으나 그 낭 있기에는 너무 서운하다는 주변의 여론을 받아들여 지난 9월4일 고인의 선영에 조촐한 비석을 세웠다. (사진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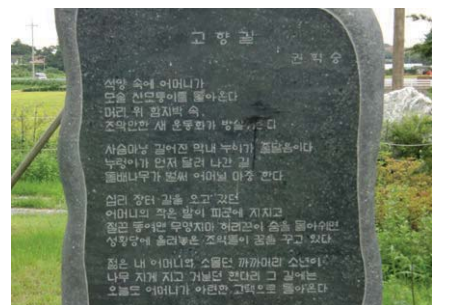
권혁승 회우 '백교문학상' 시상

강릉출신으로 한국일보 편집국장, 서울경제신문 사장을 지낸 권혁승 회우(백교문화회 회장)는 효친상사와 애향심이 깃든 작품을 전국 공모하여 수상자를 상찬하는 제1회 백교문학상 시상식을 10월 1일 강릉경포 한다리 사모정 시비공원에서 가졌다. 언론인과 문인 백여명이 참석한 시상식에는 조영민시인(장흥)의 '종신형'이 대상을 받았으며 우수상에 박성훈 유채연, 장려상은 김영미씨가 받았다.

날로 꺼져가는 효사상을 고취하고자 사모정 시비공원을 건립, 헌정한 권혁승 회우는 고향마을 이름을 딴 백교문학회를 결성, 백교문학상을 제정하고 해마다 효사상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작품을 전국적으로 공모 시상 한다.



사모정 공원.



권혁승회우 시비.

9·28 수북 60주년 행사 참전회우 다수 참석

6·25 참전언론인 동우회(회장 이해복 본회 고문) 회원들은 지난 9월 28일 '6·25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이흥구)가 주관한 9·28수북 기념행사

에 초청받고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복 회장과 한영섭 송두빈 부회장 및 박기병 신현구 오판룡 지연홍 회우등 10여명이 참석했다.

大韓言論人會 신입회우



박승구(朴勝求)=
49년 1월 13일 생
한국일보사 공채 입사,
동아일보 교열부장, 파
이낸셜 뉴스 전문위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77 강변래
미안 아파트 312동 1603호
자택전화 : 02-6447-7974
휴대전화 016-271-7974



양준용(梁浚容)=
37년 6월 23일 생
경향신문 견습 3기
동 사회부 정치부기
자, 한국경제신문 논

설위원
LA라디오코리아 해설위원
750. S Spaulding Ave #134
Los Angeles CA. 90036 U.S.A
자택 전화 323-939-9050
휴대전화 213-999-1442

회우동정

(가나다순)

장춘한국학연구소 학술회의 참가



강승훈 회우(서울언
론인클럽회장)= 9월
12일 선조 강태공의
3149주년탄신을 기념
하여 중국 제나라 옛
도읍인 산둥성 치박시

임치 태공망 광장에서 거행된 기념행사
에 참여하고 강태공 사당을 참배했다.
지난 8월 20일엔 장춘한국학연구소 설
립 15주년 기념 학술회의(주제-중국발
전과 조선반도 평화 및 발전)에 참석하
뒤 옛 고구려 역사현장을 살펴보고 백
두산 전지를 답사.

‘재일중국조선족’ 주제 특강



곽찬호 원로회우(일
본섬유신문사 한국주재
기자)= 8월 30일 서울
성동보훈회관에서 ‘재
일중국조선족’ 주제 특
강. 9월 6일 ‘노동문
제와 이민정책’ 특강.

4.19 혁명 증언 생생하게 구술



박용운 회우(동아일
보 사진담당 부국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가 4·19혁명 50주
년을 기념하여 기록물
로 남아있지 않은 분야
또는 사안을 관련자의 구술을 통해 기
록화 함으로써 4월 혁명 당시를 입체적
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구술사로 선정돼 4·19 당시의 제
반 사항을 증언.

‘고령사회와 행복한 노후’ 특강



이광영 회우(한국골
든에이지포럼 상임이
사·과학평론가)= 9월
4일 대치중학교에서
‘자원봉사’, 9월 8일
세화고등학교에서 ‘과
학과 삶’, 9월 9일 정릉교회 노인대학
에서 ‘고령사회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각각 특강.

2010 인촌상 수상



이명동 원로회우(전
동아일보 부국장)=재
단법인 인촌기념회(이
사장 현승중)가 수여하
는 2010 인촌상 언론출
판분야 수상자로 선정
됐다. 시상식은 10월 11일 롯데호텔.

‘비전21국민희망연대’ 공동대표



이보길 회우(본보편
집위원)=철원에서 열린
‘비전21국민희망연대’
회원 워크숍에서 ‘태극
기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강연.

‘바른교육전국연합’ 고문 추대



전재형 본회고문(자
유대한신문 편집인)=
8월 27일 프레스센터에
서 열린 ‘바른교육전국
연합’ 고문으로 추대
되고 9월16일엔 KU아
카데미 회원 100여명을 인솔, 청와대를
방문했다.

10월 생신 축하드립니다

1일 박석흥 이호계 정기백	11일 박문송 한동희 이형균	호현찬
2일 백인호 설임운 안홍열	12일 강성구	22일 김영범
정범태	13일 유자호 윤용호	23일 고수균
3일 김지용	14일 김광삼	24일 이성춘 허경구
4일 현원복	15일 김양섭 황원갑	25일 김양삼 정연춘
5일 박준구	16일 이환의	27일 고수웅 민기 정구호
6일 고귀남	17일 김휴선 백일진 오판룡	28일 김종범 조관희
7일 안종화 이용권	18일 박현태 신현구 홍성혁	29일 김영일
9일 김충기	19일 권대웅	
10일 이배영 최경호	20일 김 철 안평선 여구만	

詩壇

독도 愛誦

탐라국 우산국의 오랜 역사 뛰어넘어
東海의 청록바다 무량 세월 지켜 나온
영원한 배달의 領土 대한민국 獨島여!

창파에 미소 짓는 東島西島 형제바위
울타리 둘러치듯 팔십구 섬 웅기종기
검붉은 용암 太古의 신비함이 넘치네.

끝없는 滄茫錦繡 품에 감고 우뚝 솟아
저 멀리 하늘 바다 끌어안은 너의 자태
정다운 꿩이갈매기 날아들어 즐겁네.

날 저문 깊은 밤에 외로움이 짙어지고
사계절 파도 물결 깃바퀴에 맴돌아도
배달의 자존심으로 국토 至尊 지켰네.

한반도 태백정기 뻗어 내린 너의 품엔
雲霧가 드리우고 海島들이 등지 틀어
언제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토라!

뱃고동 소리 타고 찾아오는 육지 손님
海島들 날개 틀며 환영하는 독도 정경
두어라! 血脈의 地緣 어느 누가 끊으랴!

빠알간 우체통에 담아 보낸 육지 소식
청정한 물결위에 등실등실 띄워놓고
韓國領 표석 바위에 진주처럼 달았네.



유한준

- 본회 회우
- 시조시인
- 아동문학가

한반도 동쪽바다 비단물결 감싸 안고
검푸른 파도 타는 너의 기상 장엄하니
領土의 막내 獨島를 어찌 누가 잊으랴.

외로이 혼자라고 너의 이름 독도지만
찾느니 발길마다 감회 솟고 흥겨우니
네 모습 만경창파에 千萬毋態(무태) 장하
다.

한 물결 母性처럼 마스하게 이어 나온
天命의 한국 영토 萬古不易 正史로니
한반도 동해의 尖兵 永世常靑 빛나리.

2009. 6. 8. 독도에서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하반기 山行 충남 청양 七甲山으로 모십니다.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2010년 하반
기 산행을 오는 10월 14일 목요일 국
내 100대 명산 칠갑산과 장곡사에서
갯기로 했습니다.

칠갑산은 철쭉으로 이름난 산입니다.
정상을 중심으로 아흔아홉계곡을 비
롯한 까치내, 냉천계곡, 천장호, 천년
고찰 장곡사 등 비경지대가 우산살처
럼 펼쳐져 볼거리도 많은 七甲山으로
모십니다. 회원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건강을 위해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코스 = 정상→천장호 출렁다리→
최익현동상→장곡사 (정상에서 하산
행, 약 1시간 30분 소요)

◇ 집합장소 = 프레스센터 앞 오전 7
시 50분까지 탑승(시간엄수)

◇ 참가신청 = 2010년 10월 8일(금)
까지 40명 선착순 마감

연락처 산악회 총무 011-443-0063

본회 사무국 주소영 02-732-4797

◇ 참가회비 = 1인 2만원
(가족동반 환영)

※ 산행 뒤 맛있는 오찬과 기념품 증정

아 래
◇ 산행지 = 충남 청양군 소재
칠갑산·장곡사
◇ 산행일 = 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오전8시

2010년 10월 1일
본회 산악회 회장 안중우

연회비 납부

2010년

고귀남 고수균 고덕환 구건서 길윤석
김광섭 김무중 김철진 김흥기 박영식
박준구 안성열(2011포함) 양성목 유성
렬 이재승 이종문(08.09포함) 이종식
이창호 임상학 은종일 이경남(09포함)

성병욱 장석훈 장종덕(09포함) 정용희
정희준 조남조(09년포함) 최의호(09포
함) 한기호(09포함) 현준건 홍진태(09
포함)

2009년 이종석 김종열

2011년 김건이

회우 경조사

결혼

★ 임병학 회우(전 조선일보 편집위원) = 10월 9일 오전 11시 천주교 수원교구
영통 영덕 성당에서 장남 임태오군 결혼

부음

★ 김형태 회우(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 = 9월 7일 모친상. 경북 포항시
용흥동 포항의료원

한국경제

성공을 부르는 습관



미국의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고 판단합니다.



일본의 샐러리맨들은
일본경제신문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파이낸셜타임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지구촌 경제를 이끌어 가는 나라에는
대표적인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직장인에겐 성공을 위한 조언을,
CEO에겐 경제 흐름에 대한 통찰을,
가장에겐 재테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언론 동아일보

판단과 선택의 순간 동아일보에 길이 있습니다

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동아일보가 전하겠습니다.
미래를 보는 통찰, 동아일보가 담겠습니다.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어린이동아
新東亞
DongA
주관동아
여성동아
Business Review



동아
뉴스테이션
dongA.com

mobile 동아

YouTube 동아

dongA.com

동아비즈닷컴

이지 스테디

일민미술관
ilmin museum of art

PRESEUM 신문박물관

생각의 중심



동아일보

